

## [회계원리 요약정리집](서브노트 SUB-NOTE)

### 제 1장 회계의 기초

<b>회계의 의의</b>	기업활동을 화폐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b>주식회사의 특징</b>	주식발행, 주주의 유한책임, 자유로운 주식양도, 대규모 자본조달 가능	
<b>정보이용자</b>	기업이 산출하는 회계정보를 이용하려는 주체이고 이해관계자라고도 함	
	내부이용자	경영자,관리자로 관리목적의 관리보고서를 이용한다.
	외부이용자	주주,채권자등으로 일반목적의 재무보고서를 이용한다.
<b>회계감사</b>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증절차	
<b>GAAP</b>	재무제표를 산출하기위한 객관적이고 통일성있는 권위있는 회계원칙으로 기업회계기준과 해석, 준칙 및 기준서로 구성	
<b>재무제표의 의의</b>	재무회계정보를 보고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보고서 형식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대차대조표	일정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손익계산서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일정기간동안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을 나타내는 표
<b>재무제표의 구성요소</b>	자산 :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미래에 현금유입이 기대되는 재화와 채권 부채 :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미래에 현금지급하여야할 의무 자본 : 기업이 가진 순자산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구함 수익 : 영업활동에서 수취한 대가로 순자산의 증가로 나타남 비용 : 영업활동에서 지급한 대가로 순자산의 감소로 나타남	
<b>대차대조표 등식</b>	자산 = 부채 + 자본	
<b>손익계산서 등식</b>	수익 = 비용 + 순이익	
<b>이익잉여금 공식</b>	기초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배당금 = 기말이익잉여금	
<b>배당금</b>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등으로 지급하는것을 말한다.	
<b>회계기간</b>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일정기간으로 통상 1년을 한 회계기간으로 한다.	

제 2장 거래의 기록

회계거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으로 회계기록의 대상		
거래의 결합관계	차변의 거래요소와 대변의 거래요소간의 동시에 발생하는 대응관계		
거래의 8요소	차변	대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거래	손익거래	수익·비용을 발생시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자본거래	출자, 감자, 배당등 손익과는 무관한 자본의 증감거래	
부기	'장부기입'의 약칭이며 경제적사건을 기록하는 절차		
	단식부기	일정한 항목의 증감을 단순히 가감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	
	복식부기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	
복식부기의 특징	거래의 이중성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성격	
	대차평균의 원리	대변과 차변에 동일한 값으로 기록되는 복식부기의 원리	
	자기검증기능	대변과 차변금액을 확인하여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	
분개와 전기	분개	거래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	
	전기	분개장의 내용을 다시 계정에 옮겨적는 과정	
계정	실질계정	계속 차기로 잔액이 이월되는 특정시점의 자원과 청구권, 또는 의무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계정	
	명목계정	차기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고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종료되는 손익계산서 계정	

제 3장 회계의 순환과정

<b>회계의 순환과정</b>	거래 → 분개 → 전기 → 수정전시산표 → 결산수정정리 → 재무제표작성 → 수정후시산표 → 장부마감 → 마감후(이월)시산표 → 역분개	
<b>시산표</b>	차변과 대변의 합을 검증하여 회계처리과정에 오류를 확인하는 일람표를 말하며 작성시점에 따라 수정전시산표, 수정후시산표, 마감후시산표로 구분	
<b>수정분개의 목적</b>	손익계산서에 나타날 수익과 비용잔액과 대차대조표에 나타날 자산과 부채잔액을 적절하게 수정한다.	
<b>수정분개의 유형</b>	수정분개는 현금유출입 시점에 따라 이연분개와 발생분개로 구분된다.	
	이연 분개	현금선수수거래시 기중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중 차기분을 자산·부채로 이연하는 수정분개의 유형
		선급비용(자산) XXX / 비용 XXX 수익 XXX / 선수수익(부채) XXX 소모품비 XXX / 소모품 XXX
		발생 분개
	비용 XXX / 미지급비용(부채) XXX 미수수익(자산) XXX / 수익 XXX	
<b>감가상각</b>	건물, 기계장치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관련자산을 감액하는 과정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 XXX	
<b>감가상각누계액</b>	관련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평가계정이다.	
<b>취득원가와 장부가액</b>	취득원가	자산을 취득시 지불한 대가를 말하며 역사적원가라고도 한다.
	장부가액	대차대조표상 나타나는 잔액으로 유형자산의 경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
<b>장부마감</b>	한 회계기간이 마감되면 지금까지 기록하여 오던 장부를 마감하는 것을 말하며 마감절차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성된다. ① 손익계산서계정 마감 <b>집합손익</b> XXX / 비용 XXX 수익 XXX / <b>집합손익</b> XXX ② 집합손익계정과 배당금계정 마감 <b>집합손익</b> XXX / <b>이익잉여금</b> XXX <b>이익잉여금</b> XXX / 배당금 XXX ③ 대차대조표계정의 이월	
<b>집합손익</b>	마감절차에서 수익과 비용을 마감시키기 위한 임시계정으로 이 역시 그 잔액이 이익잉여금계정으로 마감된다.	

제 4장 상품매매거래

재고시스템	계속기록법	상품의 입·출고시마다 수량을 계속 기록하여 판매량과 재고량을 파악하는 방법 $기초수량 + 매입수량 - 판매수량 = 기말수량$	
	실지재고조사법	상품의 입고수량만을 기록하고 기말수량을 재고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후 판매수량을 추정하는 방법 $기초수량 + 매입수량 - 기말수량 = 판매수량$	
상품매매의 수정	에누리	상품의 파손이나 결함등으로 가격을 감액	
	환입과 환출	상품의 반환	
	현금할인	외상대금의 조기 회수시 정해진 금액을 감액하는 것	
	매매부대비용	매출부대비용	운임, 하역료, 보험료등 상품매매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매입부대비용		비용으로 처리 상품매입원가에 가산	
순매출액과 순매입액	총매출액과 총매입액이란 판매자가 판매한 송장(invoice)상의 금액이고 이후 에누리나 반품, 할인이 발생하였을때 이를 차감한 금액이 순매출액과 순매입액으로 손익계산서상 나타나는 매출액과 매입액은 순액의 개념이다. $순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에누리와환입 - 매출할인$ $순매입액 = 총매입액 - 매입에누리와환출 - 매입할인 + 매입부대비용$		
인도조건	선적지인도조건	상품의 선적시점에 소유권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되는 조건	
	도착지인도조건	상품의 구매자에게로 도착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	
매출원가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매출원가 수정분개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성된다. ① 기초재고액 제거 <b>매출원가</b> XXX / 재고자산       XXX ② 매입관련계정 제거 <b>매출원가</b> XXX / 매입           XXX 매입에누리와환출 XXX / 매입부대비용 XXX 매입할인           XXX ③ 기말재고액의 계상 재고자산           XXX / <b>매출원가</b> XXX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제 5장 재무제표

재무제표	<p>대차대조표 :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고 기말시점의 자산·부채·자본에 대한 구성항목과 금액을 나타낸다.</p> <p>손익계산서 : 회계기간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고 수익·비용·순이익에 대한 구성항목과 금액을 나타낸다</p> <p>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회계기간동안 이익잉여금 변동내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p> <p>현금흐름표 : 회계기간동안 현금의 변동내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p> <p>주기 : 회계정보를 재무제표상에 간단한 자구나 숫자로 나타낸다.</p> <p>주석 : 재무제표상에는 해당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p>	
재무제표구성요소	자산	과거거래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의 소유이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
	부채	과거거래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부담하는 미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으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
기본전제	기업환경으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된 환경적 가정으로 회계원칙의 기본명제	
	기업실체의 전제	기업과 소유주는 별개의 대상이라는 가정으로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며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는 개념으로 연결회계의 근거가 된다.
	화폐단위 측정의 전제	기업활동을 화폐단위로 측정하고 화폐단위의 가치는 안정적이라는 가정이다.
	계속기업의 전제	기업이 영업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역사적원가주의의 근거가 된다.
	기간별 보고의 전제	회계기간을 분할하여 각 기간에 대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자는 가정으로 발생주의의 근거가 된다.
역사적원가주의	취득시 지불한 대가(역사적원가)로 자산을 평가한다는 기본원칙으로 취득 후에 그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이를 바꾸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사적원가로 평가한다는 것	
실현주의	실현기준과 가득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에 수익이 실현된 시점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는 원칙이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과 비용간에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비용을 관련된 수익과 대응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원칙이다.	
계약조건	논리적타당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실무에서 오랜동안 수용된 관행을 말한다.	
	효익과 비용간의 균형	회계정보로 인한 효익이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해야한다는 회계정보의 포괄적인 제약조건
	보수주의	선택가능한 여러회계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순자산과 이익을 낮게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제약조건
	중요성	중요하지 않는 회계정보는 생략하거나 간편하게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제약조건
	업종별실무	특수한 기업이나 산업의 경우 특정업종에 적합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약조건

제 6장 자산

<b>화폐성/비화폐성</b>	화폐성자산	화폐가치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화폐액으로 표시되는 자산 (당좌자산, 투자자산)	
	비화폐성자산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화폐평가액이 변동되는 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b>자산의 평가</b>	역사적원가 (취득원가)	자산을 취득할때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을 말하고 취득시 발생한 부대비용도 포함한다.	
	현행매가	과거거래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부담하는 미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	
	순실현가능가액	순실현가능가액은 측정하려는 자산을 특정 미래시점에 처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 처분가액에서 처분과 관련된 예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공정가액	공정가액은 자산의 거래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b>자산회계처리의 흐름</b>	자산회계처리는 취득->결산정리->처분이라는 공통된 흐름에서 각 자산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회계처리로 구분된다.		
	취득원가	취득가액 + 취득부대비용	
	원가배분	재고자산과 유·무형자산의 원가를 수익비용대응의 논리에 따라 기간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저가법	결산시점에 보유중인 자산의 시가와 원가를 비교하여 시가가 원가보다 낮을 경우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재고자산	저가평가 : 재고자산평가손실
		유(무)형자산	감액손실 : 유(무)형자산감액손실
		유가증권	시가평가 : 유가증권평가이익(손실)
수취채권	대손상각 : 대손상각비		
처분손익	재고자산	총액주의 (매출액 / 매출원가)	
	이외자산	순액주의 ( 처분이익 / 처분손실)	
<b>화폐의 시간가치</b>	미래가치	<p>현재시점의 일정금액을 미래시점의 가치로 나타낸것을 말하고 단일금액의 미래가치(종가)와 연금의 미래가치(연금종가)로 나누어진다.</p> <p>종가 = 현재시점의 일정금액 × (1 + i)<sup>n</sup></p> <p>연금종가 = 연금흐름 × { 1 + (1+i) + (1+i)<sup>2</sup> + (1+i)<sup>3</sup> + ... + (1+i)<sup>n-1</sup> }</p>	
	현재가치	<p>현재가치(PV, present value)란 미래의 일정금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나타낸 것을 말하고 단일금액현재가치(현가)와 연금현재가치(연금현가)로 나누어진다.</p> <p>현가 = n년후의 일정금액 ÷ (1 + i)<sup>n</sup></p> <p>연금현가 = 연금흐름 ÷ { (1+i) + (1+i)<sup>2</sup> + (1+i)<sup>3</sup> + ... + (1+i)<sup>n</sup> }</p>	

제 7장 현금 및 금융상품

현금및현금 등가물	현금	통화+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 통화대용증권 : 타인발행수표, 우편환증서, 만기도래공사채이자표, 배당증권		
	현금등가물	취득일 기준 만기가 3개월이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과 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를 말한다.		
당좌예금거래	입금	수표수취/입금시		당좌예금 XXX / 매출 XXX
		부도발생시		매출채권 XXX / 당좌예금 XXX
		부도 수표	회수시	현금 XXX / 매출채권XXX
	회수불가		대손상각비 XXX / 매출채권 XXX	
출금	수표발행시		매입 XXX / 당좌예금 XXX	
금융상품의 분류	대차대조표일	취득일	분류	사용제한예금
	만기1년이내	3개월이내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3개월초과	단기금융상품	주석기재사항
	만기1년초과	장기금융상품		주석기재사항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	
은행계정 조정표	회사와 은행간의 당좌잔액의 차이를 원인에 따라 조정하는 명세표를 말한다.			
	미결제수표	은행측 차감		
	미기록예금	은행측 가산		
	미통지예금	회사측 가산		
	이자비용(수수료) 및 부도수표(어음)		회사측 차감	
소액현금제도	일정금액의 현금을 기금형식으로 운영하여 현금의 입·출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기금의 보충을 사용한 금액만큼 충당하는 정액기금전도제도와 항상 일정액을 충당하는 부정액기금전도제도로 분류된다.			
현금과부족	기업의 현금보유액과 현금계정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나타내는 임시계정이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현금 입·출금의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임시계정이다.			

제 8장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수취채권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지급채무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대손	수취채권을 지급하여야할 채무자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대손회계처리	직접상각법	대손이 실제발생할 때 이를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관련수취채권을 장부에서 제각하는 방법	
	충당금설정법	당기말 수취채권중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대손을 기말에 추정하여 수취채권을 충당금이라는 평가계정을 사용하여 감액시키고 동일한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충당금설정법	대손확정시	대손충당금 XXX / 매출채권 XXX	
	제각채권회수시	현금 XXX / 대손충당금 XXX	
	결산시	대손상각비 XXX / 대손충당금 XXX	
대손추산액	채권잔액비율법	기말수취채권잔액 전체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대손추산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기일경과분석법	말수취채권의 경과기일에 따라 여러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이에 차등적으로 대손추정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어음의 양도	추심위임 : 받을어음의 보관과 만기시 대금수취를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배서양도 : 상품등의 매입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받을어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할인 :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할인	어음할인의 경우 받을어음의 소유권이 회사로부터 금융기관에 이전되었는 지에 여부에 따라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로 분류한다.		
	매각거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이는 받을어음을 매각한 거래로 보고 회계처리는 받을어음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현금수취액과의 차액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한다. (차) 현금 XXX (대) 매출채권 XXX 매출채권처분손실 XXX	
	차입거래	소유권이 이전되지않았다면 이는 받을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는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현금수취액과의 차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차) 현금 XXX (대) 차입금 XXX 이자비용 XXX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	기업이 외화자산·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외화단위를 원화로 환산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환산과 관련한 손익이 발생한다. 외화환산손익 : 화폐성자산·부채에 대해서는 현행환율을 적용하므로 역사적환율과 결산시점 환율의 차액만큼 손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외화환산손익'으로 계상한다.. 외환차손익 : 외화자산을 처분하거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시점의 환율 차액만큼 손익이 발생하는 데 이를 '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한다.		
채권/채무 평가	단기성채권·채무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나 장기성채권·채무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장기성채권/채무 회계처리		채권자	채무자
	거래시점	매출채권 XX / 매출 현재가치할인차금XX	매입 XX / 매입채무 XX 현재가치할인차금 XX
	결산시점	현재가치할인차금 XX / 이자수익 XX	이자비용 XX / 현재가치할인차금 XX
	상환시점	현금 XX / 매출채권 XX	매입채무 XX / 현금 XX



제 9장 재고자산

<b>의의</b>	영업상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중인 자산을 말한다.	
<b>원가결정</b>	매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 매입에누리와 환출 - 매입할인	
<b>다 처 보 관 재고자산</b>	미착상품	결산시점 현재 운송중에 있는 상품으로 상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이 결정된다.
	위탁판매상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상품으로 수탁자의 판매여부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이 결정된다.
	시용판매상품	회사가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인도한 상품으로 고객의 구매의사표시여부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이 결정된다.
<b>원가배분</b>	<p>매출원가와 기말재고는 수량×단가로 결정되는 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다.</p> <p>매출원가 = 당기판매수량 × 판매단가</p> <p>기말재고액 = 기말재고수량 × 재고단가</p>	
<b>원가흐름의 가정</b>	<p>개별법은 실제로 판매된 상품의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는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이 아니다. 그러나 실무상 상품의 입출고가 빈번할 경우 판매단가와 재고단가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물량흐름과는 상관없이 가정을 통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배분을 한다.</p> <p>선입선출법 : 먼저 취득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한다.</p> <p>후입선출법 : 나중에 취득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한다.</p> <p>평균법 : 취득한 상품의 평균단가를 적용한다.</p>	
<b>원가배분의 비교</b>	<p>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라 원가배분을 하면 물가의 변동여부와 관련하여 기말재고자산, 순이익,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가 되며 매출원가는 그 반대가 된다.</p> <p>물가상승&gt;0인 경우</p> <p>선입선출법&gt;이동평균법&gt;총평균법&gt;후입선출법</p> <p>물가상승&lt;0인 경우</p> <p>선입선출법&lt;이동평균법&lt;총평균법&lt;후입선출법</p>	
<b>재고자산의 추정</b>	매출총이익률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매출총이익률의 추정</li> <li>② 매출원가 = 매출액 X (1 - 매출총이익률)</li> <li>③ 재고자산 = 판매가능액 - 매출원가</li> </ol>
	소매재고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원가율 = 판매가능액(원가) / 판매가능액(매가)</li> <li>② 기말재고(매가) = 판매가능액(매가) - 매출액</li> <li>③ 기말재고(원가) = ② X ①</li> </ol>
<b>평가손실과 감모손실</b>	<p>결산시점의 상품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를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p> <p>상품의 파손, 분실등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재고자산 가액에서 제거하고 원가성이 있는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p>	

제 10장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b>유형자산의 의의</b>	정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			
<b>취득부대비용</b>	토 지 : 등기수수료, 중개비용, 취득등록세, 측량비, 정지비, 구건물의 철거비용 기계장치 : 운반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b>취득원가</b>	장기연불구입 :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일괄구입 : 일괄구입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안분 현물출자 : 공정가액 자가건설 : 건설과정의 재료비,노무비,도급금액 + 건설관련 차입금 이자비용 무상취득 : 공정가액			
<b>취득후지출</b>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거나 품질을 향상 또는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말하고 이러한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한다.		
	수익적지출	유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하고 이러한 지출은 당해 기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		
<b>감가상각의 요소</b>	내용연수	유형자산의 예상사용기간으로 물리적인 내용연수와 기능상의 내용연수 중 적은 기간을 내용연수로 계상한다.		
	잔존가액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순실현가능가액		
	감가상각대상액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		
<b>감가상각방법</b>	정액법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액 × (1/내용연수) 정률법 :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가액 × 상각률 연수합계법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액 × (잔여내용연수/내용연수합계) 이중체감법 :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가액 × (2/내용연수) 생산량비례법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액 × (당기생산량/예상총생산량)			
<b>가속상각법의 특징</b>	가속상각법은 초기에 비용을 많이 계상하므로 순이익을 낮게 보고하고 절세효과가 있으며 수선유지비를 함께 고려하면 기간비용이 일정해지고 이에 따라 수익비용대응이 적절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b>무형자산</b>	정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b>구분</b>	구분	취득원가		내용연수
		외부구입	내부창출	
	법(계약)적 권리 산업재산권, 저작권, 어업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등	취득가액+ 부대비용	등록비용 (제작원가 불인정)	min(법적기한, 경제적내용연수)
	개발비 영업권	X 합병대가-순자산가액	제작원가 X	
<b>개발비</b>	개발비란 기업의 개발활동상의 지출을 말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20년이내 기간동안 정액법 등으로 상각한다.			
<b>영업권</b>	영업권이란 우수한 인적자원, 기술적 노하우등 동종기업보다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수합병 등으로 취득한 영업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영업권은 20년이내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제 11장 유가증권

<b>유가증권</b>	유가증권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나 국·공채등 채권을 말한다. 기업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유희자금을 유가증권에 취득하여 단기시세차익과 배당금 또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기업에 영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이다.	
<b>채권의 분류</b>	단기보유목적 :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액법(영업외손익)을 적용한다. 장기보유목적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액법(자본조정)을 적용한다. 만기보유목적 :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상각원가법을 적용한다.	
<b>주식의 분류</b>	지분율 20%미만	단기보유목적 :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액법(영업외손익)을 적용한다. 장기보유목적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액법(자본조정)을 적용한다.
	지분율 20%이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한다.
<b>채권가액의 결정</b>	이자율 상황	
	취득유형	
	액면이자율=시장이자율	액면가액=취득가액 (액면취득)
	액면이자율<시장이자율	액면가액>취득가액 (할인취득)
	액면이자율>시장이자율	액면가액<취득가액 (할증취득)
<b>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b>	단기매매증권	
	·투자주식 취득시	
	(차) 단기매매증권 ××× (대)현 금 ×××	(차) 매도가능증권 ××× (대) 현 금 ×××
	·배당금 수취시	
	(차) 현 금 ××× (대) 배당금수익 ×××	(차) 현 금 ××× (대) 배당금수익 ×××
	·기말시가변동시	
	(차) 단기매매증권 ×××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차) 매도가능증권 ×××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감액손실 인식	
(차)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대) 단기매매증권 ×××	(차)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 (대) 매도가능증권 ×××	
·감액손실 환입		
(차) 단기매매증권 ×××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차) 매도가능증권 ××× (대)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환입 ×××	
<b>단기매매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b>	단기매매증권	
	·투자주식 취득시	
	(차)단기매매증권 ××× (대)현금 ×××	(차)투자주식 ××× (대)현금 ×××
	·피투자회사가 당기순이익 보고서 -회계처리없음-	
	(차)투자주식 ××× (대)지분법평가이익 ×××	
	·기말시가변동시	
	(차)단기매매증권 ××× (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 회계처리 없음 -
	·영업권상각 -회계처리없음-	
(차) 지분법평가이익 ××× (대) 투자주식 ×××		
·피투자회사가 배당금지급시		
(차) 현금 ××× (대) 배당금수익 ×××	(차) 현금 ××× (대) 투자주식 ×××	



제 13장 자본(1)

자본의 분류	자본금	주식의 액면가액 × 발행주식수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처분전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매도가 능증권평가손익
보통주와 우선주	보통주란 기본적인 주주의 권리, 즉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는 주식이고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등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 주식이다.	
현금출자와 현물출자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준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출자라 하고 현금이 외의 자산을 받는 경우 현물출자라 한다. 현금출자의 경우에는 수취한 현금액을 기준으 로 회계처리하지만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현금출자	현물출자
	(차) 현금×××(대)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차) 자산 ××× (대)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사 채 발 행 비 와 신주발행비	기업은 사채 또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 경우에는 증권인쇄비, 발행수 수료등 제지출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출은 발행대금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사채발행가액 = 사채발행대금 - 사채발행비 주식발행가액 = 주식발행대금 - 신주발행비	
실질적증자	실질적 증자란 주식발행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실질적 증자는 주식 발행가액에 따라 액면발행, 할증발행, 할인발행으로 구분된다.	
	발행가액 > 액면가액 (할증발행)	
	·청약시점	·발행시점
	(차) 현 금 ××× (대) 주식청약증거금×××	(차) 현 금 ××× (대) 주식청약증거금 ×××
(차) 현 금 ××× (대) 자본금 ××× 주식청약증거금 ××× 자본잉여금 ×××	(차) 현 금 ××× (대) 자 본 금 ××× 주식청약증거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상환시점	(차) 사 채 ××× (대) 현 금 ××× (차) 현 금 ××× (대)만기보유증권 ×××	
형식적증자	형식적 증자란 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며 주식을 발행하므로 자본금 은 증가하나 동액만큼 잉여금이 감소하므로 자본총액의 변동은 없다. 형식적증자는 잉여금의 배당가능 여부에 따라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로 구분된다.	
	주식배당	발행가액 < 액면가액 (할인발행)
	(차) 이익잉여금 ××× (대) 자 본 금 ×××	(차) 자본잉여금 ××× (대) 자 본 금 ××× 법정적립금 ×××
실질적 감자	실질적 증자란 주식반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실질적 감자는 주식 감자대가에 따라 회계처리가 구분된다.	
	감자대가 < 액면가액	
	(차) 자 본 금 ××× (대) 현 금 ××× 감자차익 ×××	(차) 자 본 금 ××× (대) 현 금 ××× 감자차손 ×××
형식적감자	형식적 증자란 회사가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받 는 것으로 자본금은 감소하나 동액만큼 결손금이 감소(이익잉여금이 증가)하므로 자본 총액의 변동은 없다.	
	(차) 자 본 금 ××× (대) 이익잉여금 ×××	



제 14장 현금흐름표

<b>현금흐름표의 의의</b>	현금흐름표란 기업의 일정기간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현금의 입금내역과 출금내역을 구분하여 나타낸다.
<b>현금흐름표의 유용성</b>	첫째,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기업의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객관성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b>현금흐름의 구분</b>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한다. 영업활동이란 상기업의 경우 상품매매활동을 말하며 투자와 재무활동으로 구분되지 않는 활동도 포함한다. 투자활동이란 고정자산의 취득·처분 및 현금의 대여활동을 말한다. 재무활동이란 현금의 차입·상환 및 신주발행, 배당금의 지급활동을 말한다.
<b>작성방법</b>	직접법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직접적인 유입과 유출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방법이다. 직접법의 현금흐름을 구하는 방법에는 T계정법을 사용한다. ·현금유입액(+) = 수익(+) - 자산의 증감 + 부채의 증감 ·현금유출액(-) = 비용(-) - 자산의 증감 + 부채의 증감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산출하는 방법이다. 영업활동현금흐름=당기순이익±비현금손익±투자·재무손익±영업자산·부채의 증감
<b>현금흐름표 주석사항</b>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연불구입등 중요한 비현금거래와 현금흐름표를 직접법으로 작성할 경우 당기순이익에 가감할 항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의 기초]차변과 대변(Debits and Credits)이란?

차변과 대변(Debits and Credits)

차변과 대변이라는 용어는 좌측 우측과 동의어다. 차변은 Dr. 대변은 Cr. 이란 약어를 사용한다. 이들 용어는 반복해서 기록과정에서 이용된다. 예컨대, 계정좌측에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는 차기, 계정우측에 기입하는 행위는 대기라고 한다. 계정양변의 합계를 비교할 때 차변금액합계가 대변금액합계를 초과할 때는 차변잔액을 가지게 되고, 대변금액합계가 차변금액합계를 초과하게 되면 대변잔액이 된다. 좌측을 차변이라 하고 우측을 대변이라 하는 것은 회계관습이며 규칙이다. 회계담당자는 차변 대변이 정반대로 바뀌어져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정좌측을 차변, 우측을 대변이라고 하는 관습은 차량은 우측통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규칙은 모든 계정에 적용된다.

[회계상식]계정이란 무엇인가 ?

< 계정이란 무엇인가 ? >

1. 계정 및 계정과목이란 ?

거래의 발생과 더불어 나타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변동과 수익,비용의 발생 내용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계산하기 위한 복식부기 특유의 계산단위를 계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정의 명칭을 계정과목이라고 하며, 이 계정과목은 종류나 성질이 다른 다양한 거래를 일관된 기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계산의 기본단위가 된다.

2. 계정의 분류

(1)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한 계정의 분류이다. 대차대조표 계정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계정들로서 자산, 부채, 자본계정으로 구성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계정들로서 수익, 비용계정으로 구성된다.

① 대차대조표계정

- 자산계정 : 유동자산,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 부채계정 : 유동부채, 고정부채
- 자본계정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② 손익계산서계정

- 수익계정 : 매출액,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 비용계정 :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법인세비용

(2) 실제계정과 명목계정

계정의 항목의 실제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① 실제계정 : 유,무형을 막론하고 실제로 존재하여 실질가치를 가지는 계정으로서 물건, 권리, 의무 등을 나타내는 계정이다. 실제계정의 예로는 자산, 부채, 자본계정이 있는데 위의 대차대조표 계정과 일치한다.

② 명목계정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구적으로 가상의 계정이다. 명목계정은 자본의 증감을 일으키는 수익,비용의 계정을 말하는데 보통 손익계산서 계정을 말하는 것이다.

(3) 그 밖의 특수계정

① 통계계정 :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많은 개별계정들을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하여 나타내는 요약계정을 말한다. 즉 보조원장에 기록된 다수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계정들을 집합하여 총계정원장에 하나의 계정으로 기록하는 경우, 그 총계정원장의 계정을 통계계정이라고 부른다.

② 평가계정 :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계상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계정이다. 계상금액을 차감하는 계정을 차감계정이라 하고, 계상금액에 가산하는 계정을 부가계정이라고 한다. 계상금액에서 평가계정을 가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따라서 계상금액은 평가계정을 고려하기 전의 금액이다.

③ 대조계정 : 서로 관련되어 있는 두 개의 계정이 차변과 대변의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동시에 발생하였다가 동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계정을 말한다.


3. 계정과목 설정의 원칙

계정과목은 당해 과목에서 기록하게 될 거래의 실질이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정과목은 기업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 ① 기업회계기준 준거의 원칙 :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계정과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명확성의 원칙 : 계정과목은 계정의 성질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단순성의 원칙 : 계정과목의 내용은 단순하여야 하고 한 계정과목에 성질, 종류가 다른 항목을 함께 기록해서는 안된다.
- ④ 계정간 분합의 원칙 : 거래의 빈도가 많고 금액이 큰 것은 세분하고, 빈도가 적고 금액이 작은 것은 보고에 지장이 없는 한 적절하게 통합하여야 한다.
- ⑤ 계속성의 원칙 : 일단 설정한 계정과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이는 비교가능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회계상식]손익계산서 보는법에 대하여

손익계산서 보는법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하건 또는 거래를 하건 거래를 하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재무제표에서 먼저보게 되는 것은 손익계산서이다.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s : I/S)란 ☆☆☆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재무제표로서 그 기업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을 표시하게 된다.

이중에서 기업이 흑자인가 적자인가를 따질때에는 네가지 이익중에서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고정자산을 팔아 생긴 특별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상이익을 눈여겨 보는게 좋다.

또한 경상이익에는 영업외 이익(주변적, 부수적인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손익계산서를 볼 때에는 매출액이 늘어나며, 네가지 이익이 모두 흑자인지를 보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해나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이익의 추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손익계산서를 보는데 어느정도 익숙해있다면 손익계산서항목을 한단계 가공하면 재미있는 숫자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매출액경상이익율"이다.

"매출액경상이익율"은 경상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치로서 이는 물건을 팔 때 얼마나 이익은 내는가를 말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서 매출액경상이익율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당기순이익을 그기업의 발행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주당순이익(EPS)"은 투자를 결정할 때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된다.

예를 들어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의 발행보통주식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면 실제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적기때문이다.

[회계상식]대차대조표 보는법에 대하여

손익계산서와 더불어 대차대조표 자체의 분석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대차대조표에서 눈여겨 볼 점은 다음과 같다.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 B/S)란 ☆☆☆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결산일)현재의 모든 자산과 부채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말한다.

대차대조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누어 계산한 수치로서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이 우량기업으로 분류된다.

부채비율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외부차입금이 작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량기업이라도 현금흐름이 막혀 흑자도산(이익이 있으면서 도산하는 것)을 하는게 요즘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전년도 현금흐름표와 당해연도의 현금흐름표까지 보아야 하지만 회계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대신하여 볼수 있는 지표로 "경제적 부가가치(EVA)"가 이용된다.

경제적부가가치를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기자본이익율(당기순이익/자기자본)에서 시중금리를 뺀 숫자로 단순화하여 이용하면 된다.

경제적부가가치가 양수(+)로 나타나야 좋은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지표가 좋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회계를 조작하였다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지표이외에도 재고자산이 급증하였거나 불필요한 가공자산이 늘어난 경우 또는 계열사와 거래가 많거나 부채가 많으면서 예금이 많은 경우 등을 함께 눈여겨 본다면 보다 나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회계기준해설]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중에도 그 자산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비용이 발생한다. 어떤 비용은 그 지출의 효익이 지출한 연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출의 효익이 장래의 일정기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지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지출에 대하여 자본(자산)화 할 것인지 또는 비용화 할 것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1.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용역잠재력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지출로써 이러한 지출은 지출한 연도의 비용으로 보고하지 않고 자본화한다는 뜻이다. 즉, 어떤 원가를 자산계정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본적 지출로 기록한 후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각 회계기간에 걸쳐 원가배분(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데 이점이 후술하는 수익적 지출과 다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45조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구분기준에 부합되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하여야 할 것이다.

(1)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

- ①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
- ②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대 시키는 지출
- ③ 미래에 수익력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지출
- ④ 그 지출효과가 당해연도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 미치는 지출
- ⑤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출

(2) 법인세법시행령 제 31조

-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의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참고

2.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

수익적 지출이란 용역잠재력을 증가시키지 못한 경우로써 수익적 지출은 단지 당기의 회계기간에 대하여만 효익을 주는 원가를 말한다. 따라서 수익적 지출은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46조에서는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는 수익 적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구분기준에 부합되면 수익적 지출로 하여야 할 것이다.

(1) 수익적지출의 구분기준

- ① 유형자산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지출
- ② 본래의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
- ③ 지출된 비용효과가 당해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지출
- ④ 경상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7조

- ①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②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③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 ④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 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 ⑥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 ①항 및 ⑤항과 유사한 것

(3)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16

- ①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지출로 한다
- ②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 ③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 ④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부도어음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1. 부도어음이란 ?

어음소지인은 만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시하여도 거절되면(환어음의 경우 인수가 거절되는 경우 포함) 부도가 발생하는데, 이때 지급이 거절된 어음을 부도어음이라고 한다.

### 2. 부도어음의 계정과목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면 장기성 매출채권(부도어음) 계정으로 처리한다. 받을어음은 유동자산에 속하나 부도어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며, 투자자산으로서 장기자산의 성격을 갖는다. 부도어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한 것은 어음의 부도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회수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유동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어음채권이 부도된 경우의 포함 여부이다.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어음채권의 부도시에는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장기성 매출채권(부도어음) 계정에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즉 1년 이내 회수가능 여부에 따라 미수금 또는 장기미수금등의 과목을 사용하는 것이다.

### 3. 부도어음의 회계처리

부도어음에 대한 회계처리는 ①자기소유 어음이 부도된 경우, ②배서양도한 어음이부도된 경우, ③할인한 어음이 부도된 경우의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1)자기소유 어음이 부도된 경우

ex) 배서양수하여 보유중인 약속어음 100,000원이 부도가 되어 상환청구하다.지급거절증서 작성비 등 제비용 1,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장기성매출채권(부도어음) 101,200 대) 매출채권(받을어음) 100,000 및 현금등가물 1,200

#### (2)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된 경우

ex) 배서양도한 약속어음 100,000원이 부도가 되어 상환청구 받다. 이에 따라 어음금액 100,000원과 지급거절증서 작성비 등 제비용 1,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장기성매출채권(부도어음) 101,200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101,200

#### (3)할인한 어음이 부도된 경우

ex) 배서양수하여 은행에서 할인한 약속어음 100,000원이 부도가 되어 은행으로부터 상환청구 받다. 은행에 청구 제비용3,000원과 만기일 이후의 이자 2,000원을 포함한 10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장기성매출채권(부도어음) 105,000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105,000

### 4. 대손상각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추산은 채권의 개별적 분석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부도발생 후 소구권의 행사 결과 및 지급인의 재산에 대한 처리상황 등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채권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모두 「대손상각비」의 과목으로 처리하되,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판매비와관리비로 기재하고,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영업외비용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성 매출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에는 일반적 상거래로 인한 매출채권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판매비와일반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장 짧은 요약집 하나.

### 제1장. 會計와 會計學

제1절. 회계의 의의, 목적, 유용성

1. 회계의 의의

- ① 거래, 사상을 기록 분류, 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기술
- ② 경제적 정보를 측정,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2. 회계의 목적

-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회계와 부기

- ① 부기: 원래는 장부 기입의 약칭으로 거래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으로 기록 계산하여 그 증감 변화를 추적

4. 회계의 유용성

- ① 재무회계의 기초가 된다.-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외부보고를 수행
- ② 관리회계의 기초가 된다.-내부이해 관계자가 회계에 의해 효과적, 효율적 경영을 추구할 수 있다.
- ③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적 실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평가하는데 이용

제2절. 사회적 자원의 배분과 수탁 책임

1. 사회적 자원의 최적 배분

- ① 개인 수준-정보 이용자는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 위험과 이익을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체 안을 선택하는데 회계정보 이용
- ② 기업 수준-관리 회계와 관련, 경영계획의 수립과 경영통제의 촉진을 위하여 회계정보를 관리적으로 이용
- ③ 사회 수준-국가의 경제적 자원을 최적 배분하려고 함

2. 수탁 책임

- 경영자가 주주,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위임에 따라 기업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경영할 책임
- ① 수탁 책임의 기능-경영자가 이해 관계자, 특히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서 기업의 재산을 관리 보고하는 기능.

제3절 회계학의 생성과 발전

P.12 참조

제4절. 부기의 분류

1.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 ① 단식부기-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이 다만 상식적으로 가장하는 부기법
- ② 복식부기-일정한 원칙에 따라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 기록하는 부기법
  - i. 대차 평균의 원리 적용
  - ii. 자기 검증기능

2. 영리부기와 비영리 부기

- ① 영리부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제적 실체의 부기
- ② 비영리 부기-조직의 목표가 영리 추구가 아닌 비영리조직의 부기

제5절. 회계학의 체계

1.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 ① 재무회계-일반 회계라고도 하는 것으로 재무제표 중심의 회계
  - >외부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보고 목적의 회계
- ② 관리회계-기업의 경영자가 관리 의사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내부보고목적의 회계
  - >원가자료를 이용 회계정보의 관리적 이용, 경영의사 결정을 위한 회계관리적 기법을 강조.

제2장. 會計情報 시스템과 會計의 循環

제1절 회계정보와 회계정보 시스템

1. 회계정보 시스템과 회계과정

- ① 회계정보 시스템-정보의 흐름을 중심으로 정보의 입력, 처리, 출력의 과정이 있는 시스템. 즉 회계정보의 흐름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의 측정, 처리, 전달을 수행하는 시스템
- ② 회계 과정-회계가 수행되는 과정
- 2. 회계정보 시스템과 회계 정보의 흐름
- 3. 정보 이용자, 회계정보, 회계보고서
  - ① 정보이용자- 재무제표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라고도 함. 재무보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회계정보- 회계에 의해 작성보고되는 정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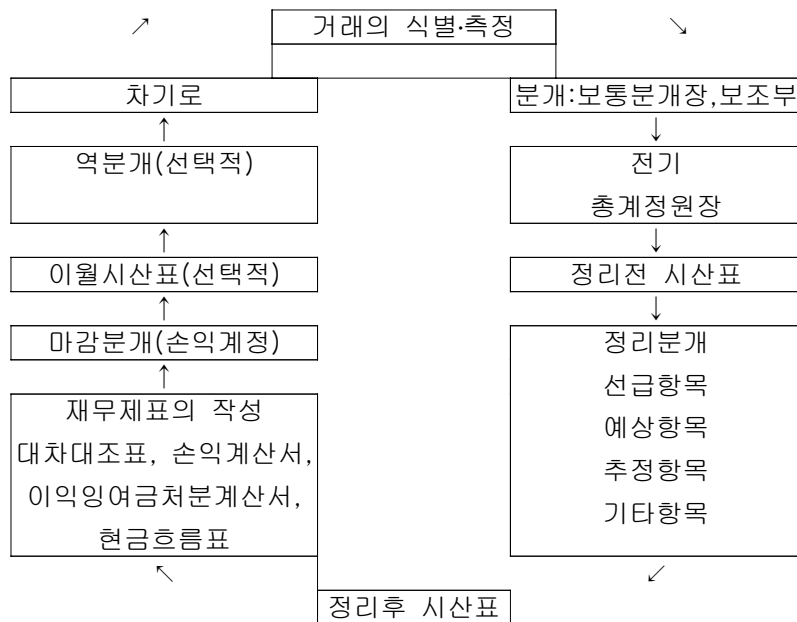
제2절. Computer와 회계정보시스템

1. 회계정보시스템과 경영정보 시스템

- ① 경영정보시스템: 경영자가 경영을 계획하고 통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처리 보고하는 시스템
- ② 회계정보 시스템: 기업이 회계정보를 측정, 처리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 ③ 차이점
  - i. 정보의 범위-
  - ii. 정보 이용자 또는 보고의 대상

제3절. 회계의 순환

회계의 순환- 회계가 수행되는 반복적인 과정, 거래, 사상의 인식으로부터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모든 과정  
 (예) 회계의 순환



제4절. 회계등식

1. 회계등식

- 재무제표의 기본요소들인 자산, 부채, 자본간의 관계를 등식 관계로 나타낸 것

$$\text{자산} = \text{부채} + \text{자본}$$

제5절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

1. 거래의 이중성

- 하나의 거래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으로 거래가 발생하면 양쪽이 같은 금액으로 변동한다는 것

2. 대차 평균의 원리

- 차변 합계와 대변합계는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서 차변과 대변은 평형을 이룬다 는 것

제3장. 會計의 概念的 틀

제1절. 회계의 개념적 틀

1. 회계의 개념적 틀의 개념

① 회계의 개념적 틀-회계의 수행하는데 있어서 골격이 되는 것으로 회계의 측정보고의 기준이 되는 것

2. 회계의 개념적 틀의 제요소

① 회계목적-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② 회계공준-기업실체, 계속기업, 화폐가지인정. 회계기간

③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신뢰성 등 6가지

④ 재무제표의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수익

⑤ 회계기준-회계행위를 하는데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행위의 지침

⑥ 회계관습-회계에 이어서 관습적인 규칙

⑦ 회계 절차-회계행위의 순서나 회계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회계기준 적용의 구체적인 절차

⑧ 회계실무-기업의 회계처리와 보고업무

제2절. 회계 공준

1. 기업실체(Business Entity)

-기업은 소유주와 별개의 독립된 실체로 존재한다는 가정

-이해관계자간의 이해 관계를 명확히 구별

2. 연속 기업

-기업은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 기업의 경영활동도 영구히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

3. 화폐가치 안정

-화폐 가치는 일정기간 안정적

① 화폐가 측정단위로 인정되는 이유-가치 척도, 교환의 매개물, 가치의 보장 수단

② 결점-화폐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있다고 하는 가정

4. 회계기간

① 기간의 공준-회계의 측정과 보고를 인위적으로 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행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

i.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

ii. 회계측정상의 불확실성의 문제가 생김

제3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1. 신뢰성(Reliability)

- 회계정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이해 가능성(Understandability)

-회계정보는 정보이용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① 간결성: 회계정보는 간단하고 단순

② 명료성: 모호해서는 안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3. 충분성(Sufficiency)

-회계정보를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

4. 연속성(Consistency)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회계기준절차방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5. 중요성(Materiality)

-회계정보는 중요한 것만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회계처리 및 보고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6. 안정성(Stability)

-회계처리와 회계보고가 기업의 안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7. 유용성(Usefulness)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한다

8.목적적합성(Relevance)

-회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한다.

9.不偏性(Freedom from bias)

-회계정보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고 편파가 없어야 한다.

10.양적 표현가능성(Quantifiability)

-회계정보는 양적으로 표현가능

-표현충실성: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과 측정치 사이의 조응과 일치에 관한 속성

제4절. 재무 제표 요소

1.자산(Asset)

①특정의 기업 또는 경제적 실체가 과거의 거래 사상의 결과로 획득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미래의 가능한 경제적 효익

②예:현금, 외상매출금, 유가 증권, 재고 자산, 토지, 건물,

③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

2.부채(Liability)

①특정의 기업 또는 경제적 실체가 과거의 거래 사상의 결과로 미래에 다른 기업 또는 경제적 실체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현재의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것. 미래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희생.

②예: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 단기 차입금, 사채, 장기 차입금.

3.자본(Capital)

①기업의 자산으로부터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지분으로 소유주가 청구할 수 있는 소유주의 몫

②예: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 잉여금

4.수익(Revenues)

①기업 또는 경제적 실체의 주요경제활동인 재화의 인도, 생산 및 용역의 제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등으로 발생하는 것

②예: 매출액, 수입 이자, 고정 자산 처분 이익 등

5.비용(Expenses)

①수익 창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액 또는 부채의 증가액

②예:매입, 급료, 수도 광열비, 지급 이자

6.순이익(Net Income)

①기업 자본의 변동액으로서 소유주에 대한 투자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는 이 자본 변동으로 부터 제외

제5절. 회계 기준

1.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회계기준으로서 광범위한 연구 조사와 해당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회계 규정 등에 의 해 일반적으로 지침으로 준수될 것이 요구되는 것

제6절. 기업 회계기준의 주요 기준

1.역사적 원가의 원칙

①원가를 회계처리, 회계보고의 기준으로 하는 원칙

②이유

i.원가는 객관적으로 결정

ii.원가는 확실하고 용이하게 결정

iii.원가는 검증 가능성을 갖고 있다.

③비판

i.원가 결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ii.원가는 현행 가치를 표시하지 않는다.

2.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수익 실현의 원칙

-실현주의 라고도 하는 것으로 수익은 실현된 시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수익 실현의 기준: 판매 기준, 생산 기준, 회수 기준



4. 현금 주의 대 발생 주의

수익의 실현 시점과 비용의 발생시점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

- ① 현금주의-수익은 현금을 받을 경우에만 인식, 비용은 현금이 지출 될 경우에만 인식하는 기준
- ② 발생주의-수익은 획득된 시점에서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한 시점에서 인식하는 기준

제4장. 財務 狀態의 測定과 報告

제1절. 재무상태의 측정과 보고

1. 재무채표

-기업의 거래를 측정, 기록, 분류, 요약하여 작성되는 회계보고서

- ① 종류-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현금 흐름표

제2절. 재무 상태의 개념과 측정

1. 재무 상태와 대차 대조표

- ① 재무상태-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부, 경제적 상태를 나타냄

2. 자산, 부채, 자본

- ① 자산-기업이 소유한 금전, 권리, 물품, 또는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 가치가 있는 것
- ② 부채-기업이 다른 개인 조직에게 현금 또는 다른 효익을 장래에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 채권자의 청구권
- ③ 자본-소유주 지분 기업의 잔여지분으로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

제3절. 대차 대조표

1. 대차대조표의 의미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

2. 구조와 양식

① 구조

차변	대변
자산:	부채: 유동부채,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 부채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	자본: 자본 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 조정

② 유동항목과 고정 항목의 분류 기준

- i. 1년 기준-자산 부채를 1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것은 유동자산이고 otherwise 고정 자산 고정 부채

제4절. 대차 대조표 작성 예제-

예) 서울주식회사의 1996년 12월 1일 자산, 부채의 잔액이 아래에 있다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게 위해 먼저 과목과 금액을 자산, 부채로 분류하고 다음에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의 차액은 자본금으로 하여 완성된 계정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

현금	₩100000	당좌예금	₩200000	외상매입금	₩150000
상품	950000	지급어음	120000	받을 어음	160000
단기차입금	170000	유가증권	150000	장기차입금	400000
외상매출금	200000	비품	130000	미지급금	50000

제5장. 經營 成果의 測定과 報告

제1절. 경영성과의 개념과 측정

1. 경영성과와 손익 계산서

- ① 경영성과-일정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경제적 성과

□ 손익 계산서 □

- i.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제공
- ii.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 iii.기업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 iv.법인세등 세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 v.기업의 배당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 vi.경영자의 업적 평가를 위한 자료

2.수익, 비용, 순수익

- ①수익-기업이 일정기간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 용역을 판매 제공한 화폐액의 합계액
  - 구분: 매출액, 영업 외 수익, 특별이익
  - 수익 항목: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유가 증권, 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
- ②비용-기업이 일정기간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 지출한 원가 또는 비용
  - i.구분-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 법인세 비용
  - ii.비용항목- 매입액, 매출 원가, 급여, 복리 후생비, 여비교통비

제2절. 손익 계산 방법

1.재산법과 손익법

- ①재산법-회계학 상의 이익을 순자산의 증가로 보는 방법, 기말의 순자산과 기초의 순자산의 차액이 순이익 <결점>  
 손익은 총액으로만 계산되므로 손익발생의 원인, 수익과 비용의 각 항목을 알 수 없다.
- ②손익법-회계학상의 이익을 수익과 비용의 차액으로 계산
  - i.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일치
  - ii.수익과 비용의 비교로 손익의 발생원인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  
 추상적 계정인 수익 비용의 대응으로 발생하는 임의 적 배분의 단점

2.거래법과 자본 유지법

- ①거래법- 일정기간 기업에서 발생한 거래를 수익비용으로 식별하여 대응시켜 순이익을 산출하는 방법
- ②자본 유지법-기말과 기초의 자본화 가치를 비교하여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

제3절.손익 계산서

1.의의

- 일정 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
- ①수익-기업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이 되는 것
- ②비용-수익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지출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비, 지출된 것이다.

2.구조와 양식

①손익 계산서의 구조

(차변)	(대변)
비용: 매출원가, 판매비 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특별손실,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수익: 매출액 영업외 수익 특별이익

3.손익계산서 작성의 예제

※서울주식회사의 例

12월 중의 거래

- ①12월 2일: 상품(원가:₩280,000)을 330,000에 현금으로 판매
- ②12월 4일: 종업원에게 교통비로 3000을 현금 지급
- ③12월10일: 상품(원가:400,000)을 470,000에 외상판매
- ④12월15일: 상품을 400,000에 매입, 대금은 외상
- ⑤12월20일: 상품(원가:300,000)을 360,000에 판매, 대금은 수표로받아 당좌예입
- ⑥12월27일: 영업과 과년 ㄴ하여 수수료 50,000을 현금으로 받음

- ⑦12월31일: 당월분의 차입금이자 30,000을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계상
- ⑧12월31일: 종업원에 대한 당월분의 급여 40,000을 현금으로 지급
- ⑨12월31일: 당월분의 집세 20,000을 현금으로 지급

서울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

<b>손익계산서</b>			
서울주식회사	1996.12.1 ~ 1996.12.31		(계정식)
비 용	금 액	수 익	금 액
매출 원가	980,000	매 출 액	1,160,000
급 여	40,000	수수료수익	50,000
교 통 비	3,000		
임 차 료	20,000		
이자 비용	30,000		
당기순이익	137,000		
	1,210,000		1,210,000

「표5-3」 서울주식회사의 손익 계산서

제6장. 去來, 計定, 分介

제1절. 거래

1. 회계상의 거래

-거래- 부기상의 거래, 자산, 부채, 자본에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항, 재무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사항

2. 거래의 이중성과 거래요소의 결합관계

- ①거래의 8요소: 자산의 증감, 자본의 증감, 부채의 증감,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 ②거래의 이중성: 거래의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2개 이상의 대립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

제2절. 거래의 종류

1. 외부거래와 내부 거래

- ①외부거래-기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거래, 구입 거래, 판매거래로 구분
- ②내부거래-기업의 내부에서 발생한 거래. 제조거래

2.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 ①교환거래-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은 일어나나 수익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거래
  - i. 자산 부채간의 교환 거래
  - ii. 부채 상호간의 교환거래
  - iii. 자산 상호간의 교환 거래
  - iv. 자산 부채
  - v. 자산 자본

- ②손익거래-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 수익거래, 비용거래, 수익비용 동시 거래

- ③혼합거래-교환과 손익이 혼합되어 있는 거래

3. 현금거래와 대체 거래

제3절. 계정

1. 계정의 의의와 형태

①의의-어떤 기준에 따라 항목들을 분류하여 계산단위로 함으로써 편리하게 회계기록을 할 수 있다.

2. 형태

3. 차변과 대변

-장부의 지면을 중앙에서 2분하여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4. 계정기입의 법칙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계정에 기입할 때 각 항목의 증가 감소가 각 계정의 차변, 대변에 어떻게 기입되는 가를 나타내는 법칙

<계정 기입의 법칙>

- ①자산계정:증가를 차변, 감소를 대변
- ②부채 “ : ” 대변 “ 차변
- ③자본 “ : ” 대변, ” 차변
- ④수익 “ :발생을 대변, 소멸을 차변
- ⑤비용 “ :발생을 차변, 소멸을 대변

5.계정의 분류

①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 계산서 계정

계정	대차대조표 계정	자산계정: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계정:유동부채, 공정 부채
		자본계정: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손익계산서 계정	수익계정:매출액 영업외 수익, 특별 이익
비용계정: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특별 손실, 법인세 비용		

②실재 계정과 명목 계정-항목의 실재 여부에 따라 분류

- i.실재 계정-유형 무형 을 막론하고 실제로 존재하여 실제 가치를 가지는 계정, 물건, 권리, 의무, 등을 나타내는 계정
- ii.명목 계정-실재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허구적으로 가상의 계정, 자본의 증감을 일으키는 수익, 비용의 계정

③기타의 특수계정-통제 계정, 평가 계정, 대조 계정, 인명계정

6.계정과목 설정시의 유의 사항

- ①기업 회계기준 준거의 원칙: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계정 과목을 사용
- ②명확성의 원칙: 계정의 성질을 명확히 표시
- ③단순성의 원칙: 계정 과목의 내용은 단순
- ④계정 분합적정의 원칙: 거래의 빈도가 많고 금액이 큰 것은 세분 빈도가 적고 금액이 작은 것은 보고에 지장이 없는 한 적절이 통합
- ⑤계정 과목 불변의 원칙: 일단 설정한 계정과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 ⑥손익계정 구분의 원칙

7.計定科目表

제4절. 分介

분개-거래를 차변과 우변으로 나누어 분개장에 기입하는 것  
 분개장-거래를 발생순서에 따라 분개하여 기입한 장부

제5절. 상품계정의 회계처리 방법

1.상품계정의 이중적 성격

매입-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  
 매출-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순수계정, 분기법의 방법과 3분법

2.순수계정, 분기법의 방법

- ①상품을 매입할 때-원가로 상품 계정의 차변에 기입  
 매출할 때-원가로 상품 계정의 대변에 기입
- ②순수계정-상품의 매입, 매출 시 원가로 계상함으로써 순수한 자산으로 처리하는 상품 계정
- ③분기법-상품을 매출할 때마다 원가와 상품 매출 손익을 분리하여 기장하는 방법
  - i.장점-상품의 증감액을 원가로 표시하여 상품계정의 움직임을 명료하게 표시
  - ii.단점-상품 매출 시마다 매입 원가와 상품 매출 손익을 분리 실무상 번잡
    - 매출액, 매출 원가, 당기 매입액을 알 수 없다.
    - 기업 회계기준의 양식에 위배

3.3 분법

3분법-상품과 관련된 회계 처리로써 상품, 매입, 매출의 세 계정으로 분할하여 계상하는 방법

- ①상품을 매입할 때- 원가로 매입 계정의 차변에 기입  
매출할 때- 매출가액으로 매출 계정의 대변에 기입
- ②매출시 상품 매출 이익이 계상되지 않음
- ③매출-매출 원가=매출 총이익  
기초재고액+ 당기 매입액-기말 재고액=매출 원가

제7장. 分介帳, 原帳, 市山표

제1절. 분개와 분개장

1. 분개와 부기

- ①분개-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것으로, 계정과목을 결정, 금액을 확정하는 회계행위
- ②분개장- 거래의 발생순서에 따라 분개를 기입하는 장부

2. 주요부와 보조부

주 요 부	분개장	보 조 부	보조기입장	현금출납장, 당좌예금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어음기입장
	원장(총계정원장)		보조원장	상품재고장, 적송품원장, 고정자산대장, 매입처원장, 매출처원장, 주주원장,
			기타의 보조부	주문 수령장, 외상 매출금연령장

3. 분개장

-거래를 발생순서에 따라 분개하는 장부

- ①단일분개장제도-여러 사람이 분개X, 거래수가 많고 복잡한 기업에서는 사용이 불편
- 복수분개장제도-분개장을 여러 개로 분할

4. 분개장 작성의 예

제2절. 원장

전기- 거래를 분개장으로부터 원장으로 옮겨적는 것

- ①원장-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쉽게 파악
- ②원장기입의 절차
  - i. 분개장의 차변 계정의 금액을 원장의 당해 계정의 차변에 전기
  - ii. 분개장의 대변 계정의 금액을 원장의 당해 계정의 대변에 전기
  - iii. 원장의 분면란에는 전기한 분개가 기입되어 있는 분개장의 page 번호 기입
  - iv. 적요란에는 분개의 상대과목을 기입

제3절. 시산표

1. 시산표의 의의와 종류

- ①시산표-원장의 기입의 정확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람표
- ②목적-분개장에서 원장으로의 전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검토, 결산전에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개요를 알기 위해 작성
- ③종류

2.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

- ①합계시산표
  - 원장 각 계정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합계액을 모은 것
  - 합계액은 회계기간에 있어서의 총거래액
- ②잔액 시산표
  - 각 계정의 잔액만을 모아서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

-기말 자산+ 총비용=기말 부채+ 기초 자본+ 총수익

3.시산표의 오류

- ①시산표의 오류의 종류-분개장에서의 오류, 원장에서의 오류, 시산표에서의 오류
- ②오류의 발견순서
  - i.시산표 차변, 대변 합계액 검산
  - ii.원장에서 시산표로 올바르게 이기되었는가를 검토
  - iii.원장 각 계정의 합계액 또는 잔액을 검사
  - iv.분개장에서 원장으로 전기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검사
  - v.분개장 기입에 오류가 있는 가를 검토
- ③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 i.거래 전체의 분개가 부락되거나, 전기가 탈락된 경우
  - ii.거래를 이중으로 분개하거나 대차 양변에 이중으로 전기한 경우
  - iii.대차 다같이 틀린 동일금액으로 분개하거나 전기한 경우
  - iv.오류가 우연히 상계된 경우, 즉 상계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

4.정리 전 시산표, 정리 후 시산표, 이월 시산표

- ①정리전 시산표
  - ※목적: 원장 계정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일치하는가 확인
  - 미결산 계정의 목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 분개의 자료가 되어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된다.
- ②정리 후 시산표-결산 정리 사항의 정리 분개를 한 후에 작성되는 시산표
- ③이월 시산표-마감 분개를 한 후 모든 손익 계산서 계정이 마감된 후 작성되는 것. 대차 대조표 계정으로만 작성되는 계정

제8장. 決算( I )

제1절. 결산의 의의와 절차

1.결산의 의의

- ①의의: 일정 기간 종료된 후 일정시점에 이어서 기업의 재무상태, 기업의 경영성과, 재무상태의 변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행하는 절차
- ②절차: 시산표의 작성, 정리분개, 계정, 장부의 마감, 결산 보고서 작성

제2절. 결산 정리

1.필요성

- ①의의-정리분개를 함으로써 기업의 일상적 결에 대한 기록인 분개장, 원장을 보충하여 기말에 추가로 분개할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
- ②필요한 이유
  - i.원장을 기초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 ii.결산 시에 인식할 거래로써 추가적으로 할 분개가 있기 마련이다.
- ③결산정리사항의 종류
  - i.선급, 이연 항목- 비용의 이연: 비용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 이월  
수익의 이연: 수익에서 차감하여 부채로 이월
  - ii.예상항목-비용의 예상: 비용에 가산하여 부채로 이월  
수익의 예상: 수익에 가산하여 자산으로 이월
  - iii.추정항목-비용의 추정  
:비용에 가산하되 자산의 평가 계정으로 계상
  - iv.기타 항목: 상품계정의 정리

2.자산의 결산 정리

- 자산 계정을 결산시 수정하여 정리하는 것
- 例)상품계정의 정리, 유가 증권의 평가, 대손 충당금의 설정, 유형자산의 감가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 현금과

부족의 처리, 가지급금의 처리, 외화 자산의 환산

①상품 계정의 정리

-3분법에 의한 정리

②유가 증권의 평가

- i.원칙-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함->취득 원가로 계상을 원칙으로 함
- ii.주식의 경우-시가가 취득원가와 다른 경우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 iii.유가증권의 시가>장부가액: 유가증권평가 이익이 발생(영업외 이익)  
                   “          <          ”:유가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영업외 비용)

③대손 충당금의 설정

-수취채권 중 회수 불능 채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손액을 추정하여 설정

- i.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 등 수취채권에 있어서의 추정회수 불능액을 표시
- ii.대손상각비 계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설정

④유형자산의 감가 상각

※감가 상각- 결산 시에 기간 손익을 올바르게 산정하기 위해 당기의 가치 감소액을 비용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유형자산의 금액을 감소

- i.정액법: 매 회계기간 일정액의 감가 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 상각기간 내에 균등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  
           연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 ii.정률법: 매년 일정률로 감가 상각  
           연 감가상각비=미상각잔액\*정률

3.손익의 결산 정리

①손익 결산 정리의 필요성

-현금주의에 의해 회계 처리해 온 것을 발생주의로 수정하는 절차

②손익의 이연

- i.비용의 이연-결산 시에 이 차기에 속할 비용을 당기의 비용으로부터 차감하고 선급분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  
           ※선급비용-비용 이연 시의 자산 즉, 비용을 자산으로 이연한 것. 비용의 미경과분이라고 할 수 있다.
- ii.수익의 이연-당기 수익으로 받은 대금 중 차기에 속할 부분으로 수익계정에서 차감하고 일시적인 부채로 표시하는 계정으로 대체하여 차기에 이월

③손익의 예상

- i.비용의 발생(미지급 비용의 계상)  
   -당기에 속하는 비용으로 미지급분이 있으면 당기의 비용에 가산하는 동시에 미지급된 부채로서 차기로 이월.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을 계상하고 미지급 비용도 부채로 계상
- ii.수익의 예상(미수수익의 계상)  
   -당기에 속하는 수익으로써 미수분이 있을 경우에는 당기의 수익에 가산하는 동시에 일시적인 자산을 나타내는 계정에 대체해야 함

④소모품과 저장품의 처리

- i.소모품-쓰는대로 닳아 없어지거나 못쓰게 되는 물품
- ii.회계처리방법  
   -1-먼저 소모품비로 처리, 결산 시 미소비분을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방법  
   -2-전액을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방법  
   -3-먼저 소모품으로 처리하고 결산 시 당기의 소비분을 소모품비에 대체하는 방법

제3절. 정산표의 작성

-정산표: 잔액시산표로부터 정리분개를 하고 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하는 일람표

※8위식정산표 작성방법

- ①계정과목 란에 잔액시산표의 계정과목을 옮겨 적는다.
- ②잔액 시산표란에 잔액시산표의 차변, 대변의 금액을 옮겨 적는다.
- ③정리분개와 정정분개를 정리기입란에 기입
- ④잔액시산표란과 정리기입란의 금액을 합산 또는 차감하여 손익계산서 항목에 속하는 것은 손익계산서란으로

- 로, 대차대조표 항목에 속하는 것은 대차대조표란으로 금액을 옮겨 적는다.
- ⑤손익계산서란과 대차대조표란의 대차의 차액이 각각 반대로 일치함을 확인->그 금액을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하여 각각 합계가 적은 쪽에 기입
- ⑥각 난의 합계액을 적고, 두 줄의 밑줄을 그어 정산표를 마감한다.

제9장.決算Ⅱ

제1절. 마감 분개

- 결산의 절차: 시산표 작성->결산정리 기입->손익계정마감->마감분개
- 마감분개-기말에 손익계산서 계정의 잔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들을 손익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개

※마감과정-장부를 마감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서 계정의 잔액을 영으로 만드는 절차  
 -모든 수익, 비용 계정의 잔액이 회계기간 말에만 설정되는 임시 계정인 손익계정으로 대체됨

제2절.장부의 마감

1.분개장의 마감

-차변과 대변의 금액 확인 후 두 줄로 그어서 마감

2.원장의 마감

-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 손익 계정잔액의 자본 계정 대체, 대차대조표 계정의 마감 순서

①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

i.손익계정의 설정

ii.수익비용 계정의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한 후 수익에 속하는 모든 계정을 손익계정의 차변에 집합, 또 비용에 속하는 모든 계정을 손익계정의 대변에 집합시킨다.

②손익계정 잔액의 자본 계정대체

③대차대조표계정의 마감-이월기입의 형태로 이루어짐

제3절.이월 시산표의 작성

1.이월시산표

-마감분개를 하고, 모든 손익계산서 계정이 마감된 후 작성되는 시산표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만이 기재되고 수익, 비용은 제외됨

제4절

제5절.결산보고서의 작성

1.결산보고서의 의미, 종류, 서식

P. 198

2.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자산>

①유동자산:1년에 현금으로 실현, 판매, 소비되는 자산

i.당좌 자산: 현금, 예금, 유가증권, 매출, 채권, 단기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ii.재고 자산: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②고정 자산: 기업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자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실현, 판매, 소비될 수 없는 것

i.투자자산: 장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자산. 장기성 예금, 특정 현금과 예금,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장기성 매출채권, 투자 부동산, 보증금

ii.유형 자산: 형체가 있는 물적 자산, 장기적으로 체류하여 경영활동의 기본이 되는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iii.무형자산: 고정자산. 이 자산 소유로 미래의 효익을 얻는 것

iv.이연자산: 비용을 이연하여 자산으로 계상.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

<부채>

③유동부채: 1년 이내에 지급될 채무로, 현재의 유동자산의사용 또는 다른 유동 부채의 발생에 의해 청산. 상환될 채무.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④고정부채:대차대조표일 1년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채무.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 매입채



무, 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자본>

- ⑤자본금: 소유주가 투자한 금액으로, 소유주의 지분계산에 기초가 되는 것.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등
- ⑥자본잉여금: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으로서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으로 나눔
  - i.자본준비금: 주식발생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기타자본잉여금등
  - ii.재평가적립금
- ⑦수익잉여금: 손익거래로 발생한 잉여금
  - i.수익준비금
  - ii.법정적립금: 기업합리화 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
  - iii.임의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등
  - iv.차기이월이익잉여금
- ⑧자본조정: 자본전체금액의 조정항목이다.

3.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계정항목

제10장. 現金, 預金, 有價證券

제1절. 현금

1.현금의 의의와 평가

- ①현금-모든 재무제표 계정의 측정과 보고의 기준이 되는 것. 모든 계정은 현금으로 환산된 금액으로 표시. 유동자산, 그 중 당좌자산에 속함. 화폐성 자산
- ②소액현금과 특정현금

2.현금 계정과 현금출납부

- ①현금의 증가-차변, 감소-대변

3.현금과부족

- ①현금과부족 계정-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장부상의 현금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나타나는 계정. 소유현금 부족-계정의 차변, 과잉-대변에
- ②원인-기장상의 오류, 도난, 분실, 현금 수입 지출 착오

4.현금의 관리와 통제

- ①현금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제도가 확립되어야 함
- ②현금 잔액을 항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

제2절. 예금

1.예금의 의의와 종류

- 종류-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대체적금
- ①당좌예금-기업이 은행과 당좌계약을 맺고서 은행에 현금을 예입, 필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 차변-현금의 예입, 대변-현금의 인출
  - ②兩建예금-은행에서 기업에 대출할 때 대출액의 일정비율 만큼을 대출기간 중 예금 또는 적금 등을 예치하도록

2.당좌차월

-은행과 미리 당좌차월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예금잔액을 초과하여도 수표를 발행하여 은행이 지급할 수 있도록

3.선일자 수표와 부도수표

- ①선일자 수표-자금이 부족할 때 자금압박을 피하기 위해 발행 받을 때- 받을 어음 계정. 선일자 수표 계정 발행할 때-지급어음 계정에서 처리
- ②부도수표-당좌예금 잔액이나 당좌차월 한도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 은행으로부터 지급이 거절된 수표
- ③대손 회계처리
  - i.기말의 대손 추정에 있어서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 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수가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 ii.기중에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할 경우 해당 선일자 수표 또는 부도수표를 상각
- 4.당좌예금 출납부.

제3절. 소액 현금 제도

1..소액 현금

-소액의 현금 지출을 위하여 준비된 자금

필요한 이유-현금은 수급, 보관의 번잡성과 도난의 위험 때문에 현금을 받으면 즉시 예금하고, 지출은 수표가 낫다.

①정액 자금 전도 제도

-처음 용도계에 일정액의 현금을 전도, 일정기간 후 실제의 지급액을 보고 받으면 동일한 금액의 자금을 보충

※장점-현금관리가 편리, 용도계의 책임이 명확, 정기적으로 지급액을 보고

※회계처리

i.전도액 공급->차변에 소액현금을 계상

ii.지출 보고-> 차변에 해당비용을 계상, 대변에 소액 현금을 감소

iii.지출된 소액 현금만큼, 소액 현금 자금을 다시 용도계에 보급

②부정액 자금 전도 제도

-전도액을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소액 현금 자금을 수시로 보충

제4절.은행계정 조정표

-회사 장부 상의 예금 잔액과 은행 장부상의 예금 잔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표

.회사 장부와 은행 장부간의 당좌예금 잔액의 차이를 알 수 있음

.내부 통제의 관점에서 당좌예금의 통제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

①불일치의 원인

i.회사에서는 입금기입, 그러나 은행에서는 미기입

ii.회사에서는 출금기입, 그러나 은행에서 미기입

iii.은행에서 입금기입, 그러나 기업에서 미기입

iv.은행에서 출금기입, 그러나 기업에서는 미기입

v.회사나 은행에서는 오기한 경우 또는 부정오류가 있는 경우

제5절. 유가 증권

1. 유가증권의 의의와 종류

①정의: 시장성 있는 일시소유의 증권, 주식, 사채, 국공채,

②본질

i.시장성이 있는 증권

ii.일시소유의 증권

③종류: 시장성 지분 증권. 시장성 부채 증권

2.유가증권의 매매

①회계처리

-유가증권의 증가. 감소->유가 증권 계정을 설정하여 처리

-취득 원가와 처분가격의 차이->유가 증권 처분 손익

-유가증권 처분 손실-영업외 비용

-유가증권 처분 이익-영업외 수익

3.유가 증권에 대한 대차, 예치, 예수

제6절. 유가증권의 평가

1.유가증권의 평가 기준

①주식-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

-시가가 취득원가와 다를 경우 시가로 평가

②채권-주식과 동일

-시가가 취득원가와 다를 경우 시가로 평가될 수 있다.

- ③유가증권의 단가를 계산함에 있어 총평균법 또는 이동 평균법은 유가 증권종목별로 적용
- ④유가증권의 시가-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증가에 의한다.
  - 대차대조표일 현재 배당락이 주가에 반영된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는 금액으로한다.

2. 새로운 평가기준(부가적인 것임)

- ①유가증권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회계처리를 규정
- ②유가증권의 시가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증가로 함으로써 실질에 맞는 가격을 시가로 인정
- ③유가증권의 단가계산에 있어 채권의 경우 개별법을 추가로 인정

제11장. 債券과 債務(I)

제1절. 수취채권과 지급 채무

1. 수취채권

-재화, 용역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①기간의 장단에 따른 분류

- i. 단기 수취채권: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 재화 용역에 대한 권리. 청구권
- ii. 장기 수취채권: 회수 기간이 1년 이상 되리라고 기대되는 용역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권

②상품(재고자산)매출과의 관련 여부에 따른 분류

- i. 매출 채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판매로 즉, 매출로 기업이 고객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ii. 비매출채권: 재화와 용역의 이전, 매출 이외의 다른 여러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2. 지급채권

-보통 부채라고 하는 것으로 재화용역의 매입, 취득, 현금차입 등의 이유로 지급할 채무

제2절. 외상거래의 채권과 채무

1.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①외상거래(신용거래):상품은 인도되었으나, 대금은 일정기간 후에 결제되는 거래를 말한다.

2. 외상거래와 통제계정

- ①통제계정: 총계정원장의 잔액이 보조원장의 개별계정의 잔액과 정확히 일치할 때의 요약계정을 말한다.
- ②통제계정 사용할 때 장점
  - i. 총계정원장의 계좌수가 줄어들므로 시산표의 작성 간편
  - ii. 총계정원장의 통제계정과 보조원장을 대조하여 오류를 쉽게 발견
  - iii. 기장 사무 분담 가능. 사무능률을 높일 수 있다.
  - iv.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의 기장을 분담시킴으로써 내부건제에 도움이 된다.

제3절. 어음거래의 채권과 채무

1. 어음의 종류

- 약속어음: 발행인이 수취인으로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 약속 증서
- 환어음: 발행인이 지명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한 증서

2.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

3. 일반적 어음 거래의 회계처리

①어음의 발행

- i. 약속어음의 발행-대변에 지급어음을 기입하여 채무의 발생
- ii. 환어음의 발행- 보통 환어음 발행 시 채무가 안 나타남

②어음의 수취

- i. 보통의 약속어음인 타인 발행 약속어음의 수취-차변에 받을 어음
- ii. 환어음의 수취-

③어음의 인수-환어음의 경우에만 발생

④어음 금액의 지급

4. 특수한 어음 거래의 회계처리

①어음의 배서: 만기일 전에 어음상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i.추심위임배서-소유하고 있는 타 회사 지급어음의 대금 추심을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경우, 어음의 뒷면에 배서하고 어음을 은행에 넘겨주는 것을 추심위임배서라고 한다.

ii.어음의 배서양도

-타인에게 배서양도-어음상의 채권소멸, 받을 어음계정의 대변에 기입

-타인으로부터 배서양수-채권발생, 받을 어음계정의 차변에 기입

·상환의무-배서인은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

②어음의 할인

-만기일 이전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배서양도하고 소정의 이자, 수수료를 할인료로 차감하여 잔액을 받음으로써 현금화하는데, 이것을 어음의 할인이라고 한다.

·할인료: 차감되는 이자, 수수료

·실수금: 어음금액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

할인료=어음금액\*연 이자율\*(할인일수/365)

③어음의 부도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하여도 지급이 거절되면 부도가 발생. 이 때의 어음을 부도어음이라고 한다.

④어음의 개서(改書)

-만기가 된 구어음과 새로 발행한 신어음을 교환

i.개서 발생 시-구어음의 채권, 채무는 소멸, 신어음의 채권채무는 발생

⑤금융어음-P.269 ~ 270

제12장.債券과 債務(II)

제1절. 기타 채권과 기타 채무

1.미수금과 미지급금

①미수금(Accounts receivable other)-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유가증권,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

②미지급금-일반적인 상거래 외에 발생한 미지급 채무, 유가증권 유형자산의 취득 등으로 나타내는 채무(유동부채로 분류)

2.대여금과 차입금

P.276

3.선급금과 선수금

4.선대금과 예수금

제2절. 貸損會計

1.대손과 대손 회계

①대손-수취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손실로 인식하는 것

대손 회계-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처리와 회수불능 채권의 예상에 대한 대손추정의 문제를 다루는 회계

②대손회계에 관한 계정

i.대손상각비: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손실을 계상하는 비용계정

ii.대손충당금:수취채권의 장액 중 회수 불능채권의 추정금액을 나타내는 것

iii.대손충당금환입: 전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당기에 새로 설정할 대손 충당금 보다 많아 차액을 환입 (영업외 수익)

iv.상각 채권과 추심 이익: 대손 처리한 수취채권이 나중에 회수된 경우 발생하는 수익계정

2.貸損處理方法

①직접상각법-특정채권이 대손 되기 전에 전혀 회계처리X 특정채권의 회수가 실제로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당기비용으로 인식, 동시에 수취채권에서 직접차감

例)<분개>

(차) 대손 상각비 \*\*\* (대)의상매출금 \*\*\*

i.장점-대손액이 추정치가 아니고, 실제액이어서 회계자료의 객관성↑, 실무 상 적용이 쉽고, 편리하다는 점

ii.단점-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방법

대차대조표 상의 수취채권의 순실현가능치가 표시되지 않는다.

- ②충당금 설정법(Allowance Method): 매출액 또는 수취채권 잔액으로부터 회수불능의 금액을 추정하여 대손 추정액을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기입하는 방법
  - i.장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른 처리방법. 대차대조표 상 수취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을 제외한 순실현 가능액으로 표시된다는 점
  - ii.단점: 대손액이 추정치여서 추정에 의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짐. 실무적으로 번잡한 회계처리

3.대손액추산법

- ①매출 잔액 비율-외상매출액의 일정비율(대손율)에 의한 대손액으로 추산
- ②채권잔액 비율법-수취채권 잔액의 일정 비율에 의한 금액을 대손액으로 추산하는 법
  - i.대손율결산법
    - 종합율-하나의 종합된 대손율
    - 개별율-경과일수별로 회수가가능성을 검토 과거의 경험을 고려 개별적으로 정할 때의 대손율
  - ii.연령분석법

4.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처리

P 289 ~ 290

제3절.수취채권과 지급채무의 기타 평가 문제

1.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입에누리와 환출

- ①매출에누리-매출상품 중 품질불량, 운송 중 파손 때는 상품대금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가 있는 데 이 때의 감액
- ②매출환입-매출한 상품을 고객이 다시 회사에 반환하는 것

2.매출할인과 매입할인

- ①매출할인-상품의 구매인이 외상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경우 판매인이 구매인에게 상품대금을 감액
- ②매입할인-상품 구매인이 외상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경우 구매인이 판매인으로부터 상품대금을 감액 받는 것
- ③현금할인의 회계처리방법- P294

3.수취채권과 지급채무의 현가 계산

-현재가치, 현가(Present value)- 현재 시점의 화폐가치

①W1의 현가에 의한 현가 계산

$$P = S / (1 + r)^n = S(1 + r)^{-1}$$

②연금 현가에 의한 현가 계산

$$S_0 = A \left\{ \frac{(1 + r)^n - 1}{r(1 + r)^n} \right\} = A \left\{ \frac{1 - (1 + r)^{-n}}{r} \right\}$$

제4절. 외상매출금의 Factoring

※Factoring(외상매출금의 양도):기업이 현금 수요나 대금회수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을 금융기관에 양도

1.상환 청구 불능의 팩토링

-채권매수인인 금융기관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2.상환청구가가능 팩토링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금융기관이 외상매출금을 양도한 기업에 대해 대신 상환할 것을 청구

제13장. 在庫資産(I)

제1절. 재고자산의 개념

1.. 재고자산의 의의와 분류

- ①정의: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판매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거나 소비될 자산
- ②중요성: 기업의 기본적 자원 중 거액, 기업 활동의 주요대상이자 이익창출의 원천.

2.특수한 경우의 재고 자산

- ①미착 상품- 상품을 주문하였으나 운송 중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
- ②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할 기타의 경우

◇위탁매출- 다른 사람에게 상품을 판매를 위탁

- ◇할부매출- 매출 대금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회수하는 매출
- ◇반품율이 높은 상품매출

3. 재고 자산 등식

- ①물량단위로 표시하는 경우  
기초재고량+ 증가량-감소량=기말 재고량
- ②화폐단위로 표시하는 경우  
기초상품재고액+ 매입액-기말상품재고액=매출원가

제2절. 상품 거래의 회계처리

1. 상품거래의 일반적 회계처리

□표13-2□참조

2. 매입제비용과 매출 제비용

- 상품을 매입할 때 상품의 매입대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例)인수운임, 매입수수료, 보험료, 수입관세, 보관료, 하역비-->상품 매입시 매입계정으로 처리

3. 매입에누리과 환출, 매출 에누리과 환입

- ①매입에누리과 환출:매입액의 차감계정으로서 매입에누리과 매입환출을 합(합)
- ②매출에누리과 환입

4. 매입 할인과 매출 할인

- 상품매입시 외상매입금을 매출처에 약정한 지급기일 보다 빨리 지급함으로써 매입가액을 할인 받는 것  
 -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

5. Rebate

- 환급액 또는 감액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급한 대금의 일부를 환불하여 주거나 대금의 일부를 줄여주는 것

6. 매입장과 매출장

제3절. 상품계정의 회계처리 방법(I)

-순수 계정 분기법의 방법과 혼합계정 총기법

1. 순수계정분기법

- ①순수계정:상품을 매입, 매출하는데 있어서 매입원가(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순수한 자산으로서의 상품계정  
 분기법(손익분기법):상품 매출 시 원가와 손익을 분리하여 기장하는 방법
- ②회계처리

i. 상품 매입

(차) 상품	***	(대) 현금	***
--------	-----	--------	-----

ii. 매출

(차) 현금	***	(대) 상품	***
		매출이익	***

- ③장점: 증감액을 원가로 표시하여 상품계정의 증감변동을 명료하게 묘사  
 단점: 실무적으로 번잡, 매출액 매출 원가 매입액을 알 수 없다.

例) P 324 ~ 325 참조

2. 혼합계정과 총기법의 방법

- ①혼합계정-상품 매출 시 상투의 매입원가 뿐만 아니라 손익이 포함되어 있는 계정  
 총기법(손익총기법)-상품 매출 시 원가와 상품 매출 손익을 합쳐 총액으로 상품 계정을 기입
- ②회계 처리

i. 매입

(차) 상품	***	(대) 현금	***
--------	-----	--------	-----

ii. 매출

(차) 현금	***	(대) 상품	***
--------	-----	--------	-----

제4절. 상품계정의 회계처리방법(II): 3분법과 5분법

1. 상품 계정의 분할

2.3분법의 회계처리

(상품, 매입, 매출)

-매입에누리와 환출을 매입에서 차감하는 형식, 매입 계정을 표시,  
매입 에누리와 환입을 매출에서 차감하는 형식

<기중 거래의 분개>

i. 상품 매입

(차) 매입                   \*\*\*           (대) 외상 매입금       \*\*\*

ii. 상품 매출

(차) 외상매출금       \*\*\*           (대) 매출               \*\*\*

iii. 매입에누리와 환출

(차) 외상매입금       \*\*\*           (대) 매입               \*\*\*

iv. 매출에누리와 환입

(차) 매출                   \*\*\*           (대) 외상매출금       \*\*\*

3. 5분법의 회계처리

(상품, 매입, 매출, 예비 에누리와 환출, 매출 에누리와 환입)

제14장. 在庫資産(Ⅱ)

제1절. 재고 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1. 실지 재고 조사법(Periodic Inventory System)

①실사법: 기말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을 실제로 셈하는 방법  
기초재고액+ 매입액-기말 재고액=매출원가

<실지 재고 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의 회계처리비교>

P. 342 참조

②장단점

- i. 저가품 다량의 상품을 취급하는기업의 경우 적절한 방법
- ii. 실무상 편하다. 장부상 상품 수량을 계속 기록해야 되는 번잡성이 없다.
- iii. 도난, 파손, 유실, 오기로 인한 재고감모손실을 알 수 없다.
- iv. 기말의 재고조사로 기업의 정상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2. 계속기록법

-재고자산을 장부 상 계속기록하여 가는 것으로 장부상의 계속적인 기록으로 기말의 재고자산 수량을 결성하는 방법

기초재고액+ 매입액-매출원가+ 기말재고액

①장점

- i. 고가품의 물건을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적절한 방법
- ii. 장부의 계속기록으로 정확한 재고기록이 장부 상 유지된다.

②단점

- i. 장부상 계속기록을 하더라도 실지재고 조사를 하지 않으면 재고액을 확인할 수 없는 무제점이 있다.
- ii. 실무상으로 번잡

3. 수정계속기록법

-기중에는 계속기록법에 의해 재고자산의 수량 변동만을 장부에 경비 기말에는 장부상 남은 재고량에 대해서만 선입선출법, 등 재고 자산 평가 방법에 의해 결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기말 재고액을 선출한다.

제2절. 재고자산의 가격결정 방법

1. 재고자산 가격결정방법과 상품재고장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 가격환원법)

①상품재고장: 상품의 수입, 불출, 잔액을 기입하는 장부

2. 개별법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매입가격별로 판매된 것과 재고 남은 것을 구별하여 재고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장점

- ①실제물량 흐름의 방향과 일치
- ②수익비용의 대응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짐

※단점

- ③거래가 빈번하고 상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 실무적으로 번잡
- ④이익조작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3.선입선출법(FIFO:First-in First-out Method)

-먼저 매입된 상품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 하는 방법이다.

(기말재고액은 최근의 매입원가, 매출원가는 오래전의 매입원가)

- ①장점:실제 물량 흐름의 방향과 일치, 기말 재고액은 시가인 현행원가를 나타낸다.
- ②단점: 수익,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이익이 과대표시되는 경향이 있다.

4.후입 선출법(LIFO>Last-in first-out Method)

-일정기간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원가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 ①단순평균법-매입합계액/매입회수(사용 불가능)
- ②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 재고자산을 매입할 적마다 매입 직전의 잔액란의 금액과 매입액의 합계액을 잔액란의 수량을 합친 수량합계액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구하고, 이것을 그 다음의 판매단가로 하는 방법
- ③총평균법(Weighted Average Method)-일정기간 매입합계액을 매입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구하고 이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법

제3절. 재고자산의 평가기준

1.원가기준(Cost basis)

-재고자산을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

- ①원가 기준에는 수익실현원칙이 암시되어 있다.
- ②재고자산의 취득 시점과 판매시점 사이에 재고자산가치의 변동이 인식 안됨

2.시가기준(현행가치 기준(Current Value Basis)

-재고자산 평가시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 ①시가(時價)
  - i.현행원가(대체원가)- 현재시장에서 동일한 자산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액, 판매인과 구매인 사이에 공정시장 거래에 의하여 결정
  - ii.순실현 가능가액(Net realizable value)- 자산의 매출액으로 부터 추가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 ②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시가기준을 저가기준의 범위내에서만 인정

3.저가기준(Lower of cost market basis)

-일반적으로 자산을 원가기준에 의하여 원가로 평가하나, 다만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할 경우에는 보수주의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

- ①저가 기준에 의한 재고자산의 시가평가로 재고자산평가손실(영업외비용으로 분류)발생
- ②재고자산을 저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보수주의에 의한 것이다.
  - i.재고 자산의 시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재고자산 판매되기 전에 인식, 시가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재고 자산이 판매되기 전에는 계상되지 않음
  - ii.재고자산가액은 언제나 취득원가보다 클수 없다.
- ③재고자산을 저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
  - i.유가증권은 가격변동이 심한 자산이나 재고자산은 비교적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은 안정세에 있는 자산
  - ii.유가증권의 시가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쉽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재고 자산은 쉽게, 객관적으로 가격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iii.유가증권은 단기적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많으나 재고자산은 유가증권보다 보유기간이 긴 경우가 많다.

제4절. 재고 자산 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 손실



1. 재고자산 감모손실

- 재고자산의 수량부족으로 발생한 소실로서 장부재고액에 비해 실지 재고액이 부족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① 발생경우-계속기록법과 실지 재고 조사법을 병용하면 발생

② 회계처리 방법

i. 원가성이 있는 경우, 매출 원가에 산입시키는 방법

-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그 원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ii. 원가성이 없는 경우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비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그 원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보기14-6>

다음 자료를 3분법에 의하여 분개하고 원장에 기입하되 상품감모손실을 원가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처리하라.

기초상품재고액 ₩50,000    상품매입액 ₩240,000    상품매출액 ₩280,000

기말상품재고액 장부재고액 60,000

실지재고액 52,000

<분개와 원장기입>

1. 원가성이 있는 경우로 매출원가에 산입시키는 법

① (차)매출원가	50,000	(대)상품	50,000
② (차)상품	52,000	(대)매출원가	52,000
③ (차)매출원가	240,000	(대)매입	240,000
④ (차)손익	238,000	(대)매출원가	238,000
⑤ (차)매출	280,000	(대)손익	280,000

상품		매입	
전기이월	50,000	매출원가	50,000
매출원가	52,000	차기이월	52,000
	<u>102,000</u>		<u>102,000</u>
전기이월	52,000		

매출원가		매출	
상품	52,000	손익	280,000
매입	240,000	매출액	280,000
	<u>290,000</u>		

손익	
매출원가	238,000
이익잉여금	42,000
	<u>280,000</u>

2. 원가성이 없는 경우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문제

① (차)매출원가	50,000	(대)상품	50,000
② (차)상품	60,000	(대)매출원가	60,000
③ (차)상품감모손실	8,000	(대)상품	8,000
④ (차)매출원가	240,000	(대)매입	240,000
⑤ (차)손익	230,000	(대)매출원가	230,000
⑥ (차)손익	8,000	(대)상품 감모손실	8,000
⑦ (차)매출	280,000	(대)손익	280,000

상품				상품감모손실			
전기이월	50,000	매출원가	50,000	상품	8,000	손익	8,000
매출원가	60,000	상품감모손실	8,000				
		차기이월	52,000				
	110,000		110,000				
전기이월	52,000						

매입				매출원가			
매입액	240,000	매출원가	240,000	상품	50,000	상품	60,000
				매입	240,000	손익	230,000
					290,000		290,000

매출				손익			
손익	280,000	매출액	280,000	매출원가	230,000	매출	280,000
				상품감모손실	8,000		
				이익잉여금	42,000		
					280,000		280,000

박교수의 회계원리 강의 요약정리집

## 제 1 장 會 計 시 스템 의 基 本 構 造

\*\*\*\*\*

본문의 주요 내용

\*\*\*\*\*

1. 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有用하게 利用**

**될 수 있는 情報(useful information)를 提供**하는 데 있다.

2. 회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능은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기능과 산출된 정보를 보고하는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계담당자는 여러 가지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會計시스템(accounting system)**이라고 한다.

3. 회계정보의 산출기능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화폐액으로 측정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하

고, 정보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분야 또는 비슷한 거래별로 분류·요약한다. 이와 같이 회계정보를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산출하는 절차를 **簿記(book-keeping)**라고 하며, 부기는 회계의 전체 영역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4. 회계측정의 대상은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영활동이다. 거래의 인식이란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중 회계기록의 대상이 되는 활동을 식별해 내는 것이며, 측정은 이러한 대상에 대해 수(numbers)를 부여하는 것이다.

5. 회계의 보고기능을 통해 산출되는 주요 재무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세무보고서, 경영관리자료 및 보고서, 정부기관에 제출되는 특수보고서 등이 있다. 회계는 정보이용자 및 보고서의 유형에 따라 세분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생성시키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管理會計(managerial accounting)**라고 하며, 기업 외부의 일반 정보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一般目的의 **財務諸表(financial statement)**작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財務會計(financial accounting)**라고 한다. 한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를 **稅務會計(tax accounting)**라고 한다.

6. **財務諸表**는 특정 회계기간의 기업의 경영활동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로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등을 통칭한다.

7. **貸借對照表(balance sheet)**는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즉, **資産**, **負債** 및 **資本**의 상태를 나타낸다. 대차대조표의 왼편에는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현황이 표시되고, 오른편에는 자산의 조달원천인 부채와

자본이 표시된다. 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부채+ 자본'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를 **會計等式**(accounting equation)이라고 한다.

8. **資産**(assets)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經濟的인 資源**으로서 기업의 미래 영업활동에 공헌하리라고 기대되는 것이다. 대차대조표에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자산부터 우선적으로 표시되고, 단기간 내에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이 나중에 표시되는 **流動性配列法**을 따르며, 일반적으로 **取得價額**으로 기록된다.

9. **負債**(liabilities)는 미래 시점에서 제3자에게 현금, 기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나타내며, 기업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지분이라고도 한다. 부채는 만기가 도래하는 순서대로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다.

10. **資本**(owner's equity)을 관점에 따라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임을 의미하는 **純資産**이라고도 하며, 총자산으로부터 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지분을 차감하고 난 이후의 잔여금액을 의미하는 **殘餘持分**이라고도 한다.

11. **損益計算書**(income statement)는 특정 기간 동안의 기업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되는 재무보고서이며, **收益**과 **費用**의 항목들이 표시되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된 **純利益**(net income)이 보고된다.

12. **收益**(revenues)은 기업이 특정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인도한 상품 혹은 제공한 용역의 총판매가격이며, 상품판매나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유입된 현금과 수취채권의 합계액으로 측정된다.

13.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原價**(cost)라고 하는데, 그 원가중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원가를 **費用**(expenses)이라 한다.

14. 재무제표가 객관적으로 작성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과 外部監査制度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GAAP)은 회계실무를 지도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회계원칙이며, 공식적인 기관에서 제정되거나 실무에서 널리 수용되어 일반적인 원칙으로 인정된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企業會計基準**이며,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제정하고 있다.

15. **外部監査制度**(external auditing)는 기업과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인된 외부감사인(公認會計士)으로 하여금 기업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가에 대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6. **會計實體**(accounting entity)란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그들의 경영활동이 하나의 회계 시스템하에서 기록, 보고되는 단위를 말하며, 기업, 개인 혹은 사회단체 등이 회계실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실체가 그 소유주와는 독립되어 존재하고, 특정 회계실체의 활동은 그 회계실체 이외의 것과는 서로 혼합되어서는 안되며, 이 회계실체의 활동 중에서 회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하나의 회계시스템에 통합되어 기록·보고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會計實體의 假定**이라고 한다.

17. **貨幣測定單位의 假定**에 의해 회계장부상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이 **貨幣**라는 공통 測定單位로 기록되고 있다. 재무제표상의 모든 항목들이 **貨幣額**으로 기록됨으로써 數的인 계산이 가능하고, 항목간 비교 및 재무제표의 기간별 혹은 기업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 가정에는 화폐의 구매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18. **繼續企業**(going-concern)의 **가정**이란 기업은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조만간 팔리거나 청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가정은 회계장부에 자산을 시장가격이나 청산가치가 아닌 취득원가로 기록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

19. 재무정보이용자들은 그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필요로 하며, 이러한 필요에 따라 기업은 인위적으로 구분된 **會計期間**(accounting period)마다 재무보고를 한다. 기업은 전통적으로 회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하지만, 필요에 따라 반기, 분기 또는 월별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한다.

20. **客觀性**(objectivity)이 결여된 회계정보는 공정성을 상실하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회계기록은 가능한한 실제 발행된 영수증 혹은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계산된 수치 등과 같이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적은 증거를 근거로 작성되어야 한다.

21.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歷史的 原價主義** (historical cost

- principle) 또는 取得原價主義라 한다. 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역사적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2. 一貫性(consistency)은 繼續性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회계거래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보할 때 동일한 경제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계원칙과 회계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23. 完全公示(full disclosure)의 개념은 특정 회계실체에 관한 중요한 경제사건은 가능한 한 빠짐없이 모두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4. 保守主義(conservatism)란 현재 진행 중인 경제적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이에 관련된 순자산 및 순이익은 그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자산 및 순이익이 과대측정보다는 과소측정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5. 重要性(materiality)이란 정확한 회계절차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재무제표가 나타내고자 하는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왜곡하지 않고, 또한 그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이용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업은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간편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 제 2 장 會計等式

\*\*\*\*\*

### 본문의 주요 내용

\*\*\*\*\*

1.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서 회계시스템에 입력 처리되고,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會計去來**(accounting transactions)라 한다. 어떤 거래가 회계거래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거래로 인해 기업의 財務狀態(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 등)에 變動이 있어야 하며, 그 변동액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객관적으로 測定可能해야 한다.
2. 회계거래는 그 발생 장소에 따라 交換去來와 內部去來로 분류할 수 있다. **교환거래**는 기업 외부의 제3자와의 거래를 말하며, **내부거래**는 자산의 사용, 도난 및 화재손실 등과 같이 기업 내부에서 발생되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3. 회계거래는 수익이나 비용과의 관련에 따라 資本去來와 損益去來로 분류될 수 있다. **資本去來**(capital transactions)는 기업의 수익이나 비용을 직접적으로 변동시키지 않는 거래로서 자본금의 출자, 부채의 조달 및 상환, 배당금 지급 등의 거래를 말한다. **損益去來**(profit and loss transactions)는 기업의 수익 혹은 비용을 직접적으로 변동시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4. **配當金**(dividends)이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 내에 누적하여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배당금은 기업의 순이익이 결정된 후 소유주가 투자한 몫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므로, 수익의 차감항목이 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항목이 된다.
5.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이익 중 배당되지 않은 부분을 나타내며,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의 발생원인인 수익과 비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당기순이익 항목을 연결 고리로 하여 연계관계(articulation)를 갖는다.
6. 수익과 비용을 언제 계상해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한 인식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現金主義會計**와 **發生主義會計**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발생주의회계가 채택되고 있다.
7. **現金主義會計**(cash basis accounting)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며, 수익 획득에 소요된 지출을 현금으로 지급한 기간에 비용을 인식한다. 현금주의회계는 적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의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시키지 못한다.
8. **發生主義會計**(accrual basis accounting)는 현금의 수취나 지급에 상관없이 수익과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느냐에 인식의 기준을 둔다. 실제 발생여부의 결정은 수익은 **實現主義原則**, 비용은 **收益·費用對應의原則**

에 따른다.

9.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수익을 **實現主義 原則**(realization principle)에 따라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상품과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본다.

10. 실현주의 원칙에서는 실제 현금수취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금의 청구권이 확정될 때 수익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외상으로 상품 혹은 용역이 제공된 경우 외상대금의 청구권이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계산서에 매출 혹은 용역매출과 같은 수익으로 계상하고, 매출채권 또는 미수수익 등의 자산의 증가로 계상한다. 한편 현금을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등의 부채의 증가와 현금의 증가로 계산한다.

11. 비용은 수익의 실현을 위해 발생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 사이에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비용은 이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회계기간에 인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因果關係**(cause and effect relationship)에 근거하여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을 **收益費用 對應의 原則**(matching principle)이라 한다.

12.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르면, 판매수수료와 같이 당기에 보고된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공헌한 비용은 현금의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당기의 비용으로 보고된다. 화재보험료와 같이 한 번의 현금 지출로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받는 지출을 현금지출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면, 차후 회계연도에는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료 비용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출은 약정된 기간 동안 비례적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나머지 미사용된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건물과 같은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은 그 경제적 효익의 지속기간을 정확히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정에 의해 매 회계연도별로 할당하여 비용을 인식한다. 광고비와 같이 지출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것은 지출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제 3 장 複式簿記制度

\*\*\*\*\*

#### 본문의 주요 내용

\*\*\*\*\*

- 회계거래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각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기록·분류·요약하기 위한 단위를 **計定(account)**이라 한다. 모든 계정은 집합되어 하나의 장부에 모아지게 되는데, 이를 **元帳(ledger)** 또는 **總計定元帳(general ledger)**이라고 한다.
- 각 계정에는 1) 계정과목 및 계정번호, 2) 금액의 증감, 3) 다른 회계기록과 상호연관 관계, 3) 일자와 거래내용을 설명하는 적요 등의 정보가 기록되도록 계정양식이 설계되어 있다.
- 계정은 중앙의 수직선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계정의 원편을 **借邊(debit)**, 계정의 오른편을 **貸邊(credit)**이라고 한다. 또한 계정에 무엇이 기록되든지 간에 계정의 원편에 기입하는 것을 **借邊記入(debit entry)**, 계정의 오른편에 기입하는 것을 **貸邊記入(credit entry)**이라고 한다.
- 계정의 **平常殘額(normal balance)**은 특정일자까지 잔액의 총 증가액이 총감소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각 계정의 평상잔액을 이용하여 작성된다.
- 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의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입되며, 평상잔액은 차변에 나타난다.
- 부채 및 자본으로 분류되는 계정의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입되며, 평상잔액은 대변에 나타난다.
- 수익으로 분류되는 계정의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입되며, 평상잔액은 대변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수익의 증가가 자본(이익잉여금)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가 나타나는 대변에 기록되어야 한다.
- 비용으로 분류되는 계정의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입되며, 평상잔액은 차변에 나타난다. 왜냐

하면 비용의 증가가 자본(이익잉여금)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본의 감소가 나타나는 차변에 기록되어야 한다

9. 複式簿記制度(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에서는 회계거래가 발생하여 계정에 기록되면,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차변기입과 이에 대응하는 한 개 이상의 대변기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회계시스템을 의미한다.

10. 복식부기제도에 따라 거래가 기록되면 하나의 거래에 대해 기입되는 차변합계액과 대변합계액은 일치되며, 또한 평상잔액이 차변에 나타나는 계정의 잔액 총계와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의 잔액총계는 일치된다.

11. 각 계정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원장에 배열된다. 즉 자산계정들이 먼저 나타나고, 다음으로 부채와 자본계정 순서로 나타난다. 각 계정에는 계정번호가 부여된다.

12. 회계거래가 발생하면 원장에 있는 각 계정에 직접 기록할 수도 있으나, 이 방법은 개별 회계거래의 기록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능률적이며 오류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은 分介帳(journal)이라는 장부를 이용하여 거래를 발생순서대로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나중에 원장의 각 계정에 옮겨 적는다. 분개장은 회계거래가 최초로 기록된다는 의미에서 原始記入帳(book of original entry)이라고도 한다.

13. 분개장은 하나의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나타낸다. 여기에는 1) 거래일자, 2) 차변 계정과목 및 금액, 3) 대변 계정과목 및 금액, 4) 거래내용의 개략적인 설명 등이 나타난다.

14. 분개장에 거래가 기록된 후 차변기입과 대변기입을 원장의 각 계정에 옮겨적는 것을 轉記(posting)라고 한다. 분개장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은 해당계정의 차변에 전기되고, 분개장의 대변에 기록된 금액은 해당계정의 대변에 전기된다. 전기할 때에 분개장의 원면에 계정번호를 기입한다.

15. 분개장의 元面과 원장의 分面은 相互照會시스템으로서 분개장의 자료를 원장으로 추적하거나, 반대로 원장에 전기된 자료를 분개장으로 추적할 때 참조된다.

16. 특정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가 분개장에서 원장의 각 계정으로 전기되면, 각 계정의 잔액을 한 곳에 모아 試算表(trial balance)를 작성하게 된다. 시산표는 각 계정의 명칭과 금액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계정들은 원장에 나타난 순서로 시산표에 기록된다. 평상잔액이 차변인 계정들은 시산표의 왼편에 집계되며, 평상잔액이 대변인 계정들은 시산표의 오른편에 집계된다. 시산표상의 차변총계와 대변총계는 일치하게 된다.

17. 시산표를 작성하면 차변총계와 대변총계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여 기록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시산표를 작성하면 모든 계정의 잔액이 한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작성이 용이해진다. 시산표는 공식적인 재무제표는 아니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이다.

18. 시산표의 작성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는 1) 분개장의 차변(대변)기입을 원장의 대변(차변)으로 전기, 2) 원장의 잔액에 대한 계산상의 오류, 3) 원장잔액을 시산표에 요약할 때 차변과 대변이 혼동되었거나 숫자를 잘못 기록, 4) 시산표의 합계를 계산할 때의 계산상 오류 등이다. 그러나 특정거래를 완전히 누락시킨 오류나 계정분류상의 오류는 시산표의 작성을 통해서 발견하기 어렵다.

## 제 4 장 會計循環過程

\*\*\*\*\*  
본문의 주요 내용  
\*\*\*\*\*

1.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정기적인 기간을 會計期間(accounting period)이라 하며,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회계기간은 1년이다.
2. 회계거래를 장부에 처음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회계정보를 사용자들에게 보고하기까지 기업이 채택하는 일련의 회계처리과정을 會計循環過程(accounting cycle)이라 한다.
3. 회계순환과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主要段階로 구성된다.
  - 1) 분개; 분개장에 거래를 기록(거래발생시)
  - 2) 전기; 분개장의 내용을 원장에 전기(매주 또는 매월 등 주기적으로)

- 3) 수정분개 및 전기; 원장계정의 잔액을 수정(재무제표 작성시)
- 4) 재무제표 작성
- 5) 임시계정의 마감(회계년도말)

위에서 1)과 2)는 회계거래의 기록단계, 3)과 4)는 회계정보의 산출단계, 5)는 회계장부의 마감단계라고 한다.

4. 회계순환과정에는 주요단계 외에 주요단계를 보조하는 다음의 補助節次가 있다.

1) 거래의 분석; 거래를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어떻게 기록할 지를 결정한다(거래 발생시).

2) 시산표의 작성; 주요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작성하여 원장계정의 차변총계와 대변총계가 일치하는 지를 검증한다. 주로 시산표는 수정분개의 전과 후, 마감분개 후에 작성된다.

3) 역분개; 발생항목에 대한 수정분개만을 대상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회계기록을 시작하기 직전에 역분개 기록을 해주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수입이나 지출을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다.

5. 證憑書類(source document)는 거래의 발생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이며, 여기에는 거래금액, 거래일자, 거래 상대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거래분석의 근거가 된다. 즉, 증빙서류를 분석해서 그 거래를 회계시스템에 기록할 지의 여부와 어느 계정에 기입할 지를 결정한다.

6. 재무제표는 원장의 각 계정잔액을 손익계산서항목과 대차대조표항목으로 재분류하고, 각 계정잔액이 적절한 지를 검토한 후 적절한 수정절차를 거쳐 작성된다. 이러한 수정 및 재무제표 작성절차를 단순화하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精算表(worksheet)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7. 정산표는 원장계정잔액의 수정과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련된 모든 회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여러 개의 란을 가진 양식이다. 정산표는 공식적인 회계장부가 아니고, 임시적인 보조수단임으로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있더라도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연필로 작성된다. 정산표를 이용하면 계정잔액의 수정분개, 재무제표 작성, 마감분개 항목의 파악 등을 쉽게 할 수 있고, 원장계정의 차변총계와 대변총계의 일치여부를 검증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8. 修正分介(adjusting entries)는 일상의 거래기록과정에서 적정하게 측정되지 못한 수익과 비용 항목들을 발생주의개념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분개를 말한다. 수정분개는 회계기간 구분의 가정에 따라 생긴 절차이다. 따라서 특정 회계기간의 수익 혹은 비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수정분개를 하지 않고, 2개 이상 회계기간의 수익 혹은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9. 수정분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이 있다.

1) 이미 기록된 수익을 당기의 수익에서 제거하거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위한 분개(선수금, 선수수익)

2) 당기중 지출된 비용이라도 그 이후의 회계기간의 수익창출에 공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기의 비용에서 제거하여 그 이후의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계상되도록 하는 분개와 이미 자산으로 기록된 원가를 사용한 기간에 소모된 부분만큼을 할당하여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한 분개

3) 기록이 안된 수익(미수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분개

4) 기록이 안된 비용(미지급비용)을 인식하기 위한 분개

위에서 1)과 2)는 이미 기록된 수익 혹은 비용을 적정한 기간에 배분하는 분개이며 移延(deferrals)이라고 하고, 3)과 4)는 당기에 이미 발생되었으나 아직 기록되지 않은 수익 혹은 비용을 당기에 인식하기 위한 분개이며 發生(accruals)이라 한다.

10. 미래에 제공할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아직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 수익인식을 하지 않고, 상품 또는 재화를 제공할 의무를 나타내는 선수금(부채)에 계상한다. 의무를 이행하여 수익이 실현되면, 실현된 금액만큼 결산시 수익계정을 증가시키고 선수금을 감소시키는 수정분개를 한다.

11. 이미 지출된 비용이 그 이후 회계연도의 수익창출에도 공헌할 것으로 예상되면, 일단 자산으로 계상해 두었다가 그 자산의 사용으로 효익을 얻는 각 회계기간 말에 자산의 원가소멸부분을 측정해서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를 위한 수정분개는 비용계정을 증가시키고, 자산계정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수정분개 대상으로는 선급비용, 소모품, 상각대상 고정자산 등이 있다.

12.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결산시점까지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수익기록도 하지 않은 경우, 용역제공으로

이미 수익은 실현되었기 때문에 대금청구와 관계없이 제공된 용역의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수정분개를 한다. 이 경우의 수정분개는 수익계정을 증가시키고, 외상 매출금 또는 미수수익 등의 자산계정을 증가시킨다.

13. 종업원 급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 전화 및 전기사용료 등은 매 기간 반복해서 발생되며, 지급 전까지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산시점이 되면 이미 비용으로 발생되었음에도 지급되지 않아서 장부에 기록이 안된 비용을 인식하기 위한 수정분개를 한다. 이러한 수정분개는 비용계정을 증가시키고, 미지급비용계정(부채)를 증가시킨다.

14. 수정분개는 반드시 수익계정 혹은 비용계정을 증가시키고, 상대계정으로 자산 혹은 부채계정의 증가 또는(감소)를 수반한다.

15. 수익과 비용 및 배당금계정은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을 보다 상세히 나타내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臨時計定(temporary account)이다. 재무제표가 완성되면 당기의 임시계정의 역할은 완료되며, 차기에 임시계정과 관련된 거래자료를 새롭게 기록하기 위해 임시계정의 잔액을 0으로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임시계정의 마감절차(closing procedures)라고 한다.

16. 임시계정은 그 잔액을 이익잉여금계정으로 대체함으로써 마감된다. 즉, 임시계정의 평상잔액이 남아 있는 반대편에 그 잔액만큼을 기입하여 계정잔액을 0으로 만들고, 이익잉여금계정에 이와 상대되는 기입을 한다.

17. 수익과 비용계정은 집합손익계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익잉여금에 대체된다. 집합손익계정(income summary)은 마감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임시계정이다. 집합손익계정을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익계정에는 평상잔액만큼 차변기입하여 수익계정잔액을 0으로 만들고, 모든 수익계정의 합계액만큼 집합손익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2) 비용계정에는 평상잔액만큼 대변기입하여 수익계정잔액을 0으로 만들고, 모든 비용계정의 합계액만큼 집합손익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18. 수익과 비용계정이 마감된 후 집합손익계정에 나타나게 되는 잔액은 당기순이익(순손실)을 의미한다.

19. 임시계정을 마감하는 최종단계는 집합손익과 배당금계정을 이익잉여금계정으로 마감하는 절차이며,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1)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집합손익계정의 평상잔액이 대변에 있으므로 잔액과 동일한 금액을 차변기입하고, 이익잉여금계정에 그 금액을 대변기입한다. 순손실의 경우에는 이것과 반대로 기입한다.

2) 배당금계정에는 그 잔액을 대변기입하고, 이익잉여금계정에 동일한 금액을 차변기입한다.

20. 임시계정을 마감시킨 후 모든 차변계정과 대변계정총액이 일치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마감 후試算表(after-closing trial balance)를 작성한다.

21. 다음 회계기간의 거래 기록을 위한 준비로써 분개장과 원장의 각 계정에 대한 장부의 마감 절차를 수행한다.

1) 분개장은 차변과 대변합계를 계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그 밑에 두 줄을 그어 장부를 마감한다.

2) 임시계정은 마감분개로 인해 이미 차변과 대변금액이 일치되므로 그 합계를 기록하고, 그 밑에 두 줄을 그어 장부를 마감한다.

3) 대차대조표계정은 차변 또는 대변에 잔액이 남은 채 차기로 이월되므로 그 잔액만큼 자산은 대변에, 부채 및 자본은 차변에 붉은 색으로 次期移越을 기입하여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일치시키고, 그 밑에 두 줄을 그어 장부를 마감한다. 차기이월액은 다음 회계기간의 개시일에 前期移越로 기입된다.

[보 론]

22. 다음 회계연도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을 간편하게 기록하기 위해 逆分介(reversing entries)를 수행한다. 역분개는 회계기말에 수행된 수정분개와 계정과목 및 금액은 같으나, 차변과 대변이 바뀐다. 역분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는 임의적인 회계절차이며, 기입일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 이다.

23. 수정분개 중에서 發生項目(accrual)만 역분개 대상이며, 移延項目은 대상이 아니다. 발생항목은 차기에 일상적인 현금의 지출이나 수입을 수반하므로 이중기입의 오류방지과 기록의 간소화를 위해 역분개를 한다.



24. 미지급비용과 같은 발생항목에 대해 회계연도 초에 역분개를 해둔 경우 관련항목에 대해 회계연도 초에 역분개를 해둔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해 현금지출이 있는 경우 전기 말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비용에 대한 지출분과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될 부분으로 일 일이 나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기만 하면 역분개로 인하여 자동으로 전기 미지급비용에 대한 지출과 당기 비용분으로 나뉘어 계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25. 미수수익과 같은 발생항목에 대해 회계연도 초에 역분개를 해둔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해 현금수입이 있는 경우 전기 말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수익에 대한 회수분과 당기에 수익으로 계상될 부분으로 일 일이 나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입된 현금 전액을 당기 수익으로 계상하기만 하면 역분개로 인하여 자동으로 전기 미수수익에 대한 회수분과 당기수익 부분으로 나뉘어 계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 제 5 장 商品賣買會社의 會計循環過程

\*\*\*\*\*

본문의 주요 내용

\*\*\*\*\*

1. **상품매매회사**는 상품(재고자산)을 구입하여 이를 되파는 활동을 영위한다. 따라서 상품매매회사의 **영업주기**는 상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상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재고자산은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여 외상판매대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2. 재고자산의 수량파악과 재고관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이 있다. 실지재고조사법이란 회계기간동안 상품의 매입을 집계하였다가 실제로 회사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조사하여 재고자산의 수량과 원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의 매입 및 매출시점에서 수량을 기록하여 언제든지 재고자산의 재고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상품매매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주된 수익의 원천으로 고객에게 판매된 상품의 판매가액인 **賣出額**(sales)이 표시되고,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賣出原價**(cost of goods sold)라는 비용항목으로 나타낸다. 이 매출원가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므로 다른 비용항목들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된다. 또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賣出總利益**(gross profit on sales)으로 표시된다.
4. 매출원가는 상품의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액을 합한 금액에서 기말재고액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특히 기초재고액과 당기 매입액을 합한 금액을 **販賣可能額**(goods available for sale)이라고 하며, 매출원가의 구성요소들은 모두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부분에 표시된다.
5. 상품을 판매하면 그 수익은 **賣出**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고, 현금 혹은 **賣出債權**계정의 차변에 기록한다. 그러나 상품이외의 자산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직접 그 자산계정의 대변에 기록하여 자산계정을 감소시키고, 외상판매의 경우 **未受金**계정의 차변에 기록한다.
6. 상품을 구입하면 그 구입원가를 **買入**(purchase)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현금계정이나 **買入債務**(accounts payable)계정의 대변에 기록한다. 그러나 상품이외의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직접 그 자산계정의 차변에 기록하여 그 자산계정을 증가시키고,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未支給金**계정에 기록한다.
7. 상품이 운송업자를 통하여 운송되는 경우 매매거래 당사자간에 그 운임의 부담자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임의 부담조건은 **船積地引渡價格** (F.O.B. shipping point) 혹은 **到着地引渡價格** (F.O.B. destination)으로 명시된다. 선적지인도가격이면 구매자가 운임을 부담하고, 그 운임은 매입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거나, **買入運賃**계정에 별도로 기록하되 손익계산서에는 매입액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보고한다. 도착지인도가격이면 판매자가 운임을 부담하며, 이는 판매자의 **運搬費**계정에 기록하고 손익계산서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고한다.
8. 상품의 결함 등으로 구입한 상품을 판매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을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賣出還入**이라 하고,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買入還出**이라 한다. 상품의 결함이 경미한 경우 구매자는 적당한 예누

리를 받는 조건으로 상품을 그대로 인수할 수도 있다. 구매자가 반품 또는 에누리를 요청하면 판매자는 이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貸記메모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통보한다. 이 때 판매자는 賣出에누리와 還入계정에 기록하고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보고한다. 한편, 구매자는 買入에누리와 還出계정에 기록하고 손익계산서에는 매입액으로부터 차감하여 보고한다.

9. 상품이 외상거래되면 信用期間(credit period)내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진다. 판매자는 대금 회수의 촉진을 위해 신용기간보다 짧은 割引期間(discount period)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이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송장가격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줄 수 있는데 그 할인액을 現金割引(cash discount)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10,n/30과 같은 신용조건은 고객이 총 30일의 신용기간 중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2%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매입채무를 할인기간내에 현금지급하고 받게되는 유리한 현금할인을 매입할인으로 기록하고, 총매입액의 차감항목으로 기록한다. 매출채권을 할인기간내에 현금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현금할인을 해주는 경우 이를 매출할인으로 기록하고, 총매출액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다.

11. 상품매매회사의 주요 在庫資産(inventory)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이다. 實地 在庫調査法(periodic inventory method)에서는 상품구입시 매입계정에 기록하고 판매시 매출계정에 기록하므로 기중에는 재고자산의 증감이 재고자산계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정전시산표의 재고자산계정에는 기초재고자산금액이 그대로 나타므로 기말에는 실시 재고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금액을 결정하여 재고자산계정을 수정해야 한다.

12. 실시재고조사법을 채택하는 기업에서는 매출원가를 산출하고 재고자산계정이 기말상품재고액을 나타내도록 하는 수정분개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출원가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의 수정분개는

1) 매출원가계정을 통해 기초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흡수하기 위한 분개로서

(차) 매출원가 ..... (대) 재고자산(기초) .....

2)매입에 관련된 임시계정(매입, 매입에누리와 환출, 매입운임, 매입할인 등)을 매출원가로 대체시키기 위하여

(차) 매출원가 ..... (대) 매 입 .....  
매출원가 ..... 매입운임 .....  
매입에누리와 환출 ..... 매출원가 .....  
매입에누리와 환출 ..... 매출원가 .....

3) 기말실사에 의해 파악된 기말재고자산을 매출원가에서 제거하고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분개한다.

(차) 재고자산(기말) ..... (대) 매출원가 .....

13. 상품매매회사의 多段階式 損益計算書는 당기순이익에 이르기까지 이익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1)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하여 순매출액을 구한다.
- 2)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賣出總利益을 결정한다.
- 3)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營業利益을 결정한다.
- 4)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當期純利益을 결정한다.

14. 상품매매회사의 비용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賣出原價는 기초재고액에 당기매입액을 가산하고 기말재고액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이 때 당기매입액에는 매입운임이 가산되고 매입에누리와 환출은 차감된다.

2) 販賣費와 一般管理費는 기업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이며, 그 중 판매비는 판매 활동에 직접 관련된 비용(판매원급료,광고선전비,운반비 등)을, 관리비는 주요 영업활동들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관리비(사무원급료,임차료,수도광열비 등)를 말한다.

- 3) 營業外費用에는 자금조달이나 투자활동과 관련되는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다.
- 15. 실지재고조사법을 채택하고 매출원가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매출원가계정은 결산시점에만 나타나는 임시계정이므로 결산시 다른 비용 혹은 수익계정과 함께 집합손익계정으로 마감 된다. 집합손익계정에 수익, 비용계정잔액이 모두 대체된 후 집합손익계정잔액은 이익잉여금계정으로 대체되어 마감된다.
- 16. 실지재고조사법을 채택하는 기업에서 매출원가계정외에 매입계정이나 집합손익계정을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재고자산계정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다. 매입계정을 이용할 때는 재고자산계정을 매입계정을 통하여 수정하는 한편, 매입과 관련된 다른 모든 계정을 매입계정으로 대체하여 마감한다. 집합손익계정을 이용할 때는 재고자산계정의 수정과 매입과 관련된 모든 계정을 집합손익계정에 직접 대체하여 마감한다.

## 제 6 장 財 務 報 告 와 財 務 諸 表

\*\*\*\*\*

### 본문의 주요 내용

\*\*\*\*\*

- 1. 財務報告(financial reporting)란 기업이 정보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고, 재무보고에 이용되는 보고서를 통칭하여 財務報告書(financial reports)라고 한다. 재무보고는 재무제표의 내용외에 영업보고서, 부속명세서 및 기타의 재무보고서 등을 통해 계량화가 어려운 질적 정보까지를 전달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 2. 財務諸表(financial statements)는 재무보고서의 일종이며,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재무정보를 담고 있다.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거하여 일정한 보고형식의 틀을 갖추어 작성되며,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 4.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재무제표의 종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 있으며 기본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주기, 주식, 부속명세서 등이 있다.
- 5.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신뢰성, 명료성, 충분성, 계속성, 중요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7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6. 信賴性은 회계처리 및 보고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신뢰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客觀性(objectivity), 檢證可能性(verifiability), 公正性(fairness)이 지켜져야 한다.
- 7. 明瞭性은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8. 充分性은 완전공시(full disclosure)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목적에 적합한 정보는 그들이 오도되지 않도록 충분히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9. 繼續性은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이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10. 重要性(materiality)은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11. 安全性(保守主義)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2개이상의 선택가능한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12. 경제적 실질은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13. 貸借對照表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경제적 자원과 채무 및 소유주 지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는 정태적 재무제표로서, 「자산 = 부채 + 자본」의 등식을 이루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14. 대차대조표의 보고방식에는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은 두가지 방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

계년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15.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으로 1) 항목의 구분표시, 2) 총액표시, 3) 1년기준에 의한 유동성구분, 4) 유동성 배열, 5) 잉여금의 구분, 6) 미확인항목제거 등의 6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16. 대차대조표의 항목은 먼저 자산,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한다. 資産은 크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분류된다.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성된다. 負債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그리고 資本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 17. 總額表示의 원칙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총액에 의하여 기재해야지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서로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18.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과 비유동성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1년기준이다. 따라서 流動資産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측되는 자산을 말하며, 流動負債는 1년 이내에 상환되거나 관련 채무가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채를 말한다.
- 19. 대차대조표상에서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에 따른다. 따라서 자산은 현금으로의 전환용이성 혹은 단기간 내의 소비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산부터 배열되고, 부채는 상환예정일이 가장 빠른 부채의 항목부터 순서대로 배열된다.
- 20. 자본의 일부로 표시되는 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21.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22.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기간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 비용 = 순이익(혹은 순손실)」의 등식을 이루는 요소로 구성되며 수익, 비용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한 후 이를 기업의 중심적인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배열하여 보고한다.
- 23.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구분식(다단계식) 손익계산서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식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별로 상호대응시켜 단계별이익을 산출한다. 즉 매출액에 매출원가를 대응시켜 매출총이익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한다.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경상이익을 산출하며, 경상이익에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을 가감하여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법인세를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결정한다.
- 24. 손익계산서상에 포함시켜야할 수익과 비용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當期業績主義와 包括主義의 관점이 있다. **당기업적주의**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간이익은 당기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항목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괄주의**는 당기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이며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별항목과 법인세비용 및 전기수정사항 등이 모두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회계기준은 비교적 포괄주의에 접근된 다단계식 이익개념 관점을 택하고 있으나,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및 배당건설이자의 상각 등과 같은 항목은 이익잉여금에서 직접조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 25.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으로 1) 발생기준 2) 수익과 비용의 분류 및 대응표시 3) 총액표시 4) 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발생기준(accrual basis)에서는 수익을 실현주의에 의해 인식하고 비용을 관련 수익에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인식한다. **收益과 費用의 분류 및 對應表示**는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상호 대응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總額表示**는 수익과 비용을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고, 수익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해서 표시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손익 區分表示**기준에 따라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단일의 이익개념으로 보고하지 않고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26. 판매시점은 영업순환주기의 가장 결정적 사건(critical event)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익은 판매시점에서 인식된다.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 판매가 발생했다고 보며, 상품판매의 경우에는 상품의 소유권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로 이전(인도)되었을 때 판매가 발생했다고 본다.

27. 수익은 판매시점이외에 판매대금의 회수시점이나, 생산기간 중에도 인식될 수 있다. 回 收基準 (collection basis)은 현금이 회수될 때까지 수익인식을 연기하는 것이며, 주로 할 부판매의 경우에 적용된다. 회수기준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할부법**은 현금회 수액을 원가와 판매가의 비율에 따라 원가의 회수와 매출이익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 기준은 중소기업에서만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법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8. 장기의 도급공사와 같이 영업주기가 1회계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공사진행율의 추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進行基準을 적용하여 판매 혹은 인도 이전이라도 수익 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총공사수익 및 총공사예정원가의 추정이 불확실 할 때는 完成基準을 적용하여 완성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재무제표의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비계량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註記 (parenthetical disclosures)와 註釋(footnotes)을 이용한다.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괄호안에 표기하는 방법이다. 대차대조표의 당기순이익(손실)과 손익계산서의 주당경상이익 및 주당순이익은 주 기 표시 대상이다.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사실을 간결하게 표시하는 방법이다. 주석사항의 예로써 회 사가 채택한 회계처리방법,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주요 거래내 용 등이 있다.

30.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 무제표 주석 사항으로 기업의 환경기준과 정책, 환경관련 투자액, 안전 및 사고에 관한 사항,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 부산물 및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시 하도록 하고 있다.

31. 附屬明細書(supporting schedules)는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중에서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해당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속 명세서에는 유가증권명세서, 특수관계자의 채권.채무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유형자산명 세서 등이 있다.

32. 部門別報告(segmental reporting)는 기업의 이익을 구성하는 각 영업부문에 대한 수익 및 이익에 관한 정보,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회 계기준에서는 사업부문별 보고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3. 中間財務報告(interim reporting)는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년 보다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보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재무보고로 **반기재무제표**(반기대차대조표와 반기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34. 공인회계사의 **監査報告書**에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 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감사의견이 표명된다.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 의견, 부적 정의견, 그리고 의견거절이 있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 성되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을 때 표명된다. **한정의 견**은 일부의 예외사항(감사범위 제한, 기업회계기준 위배)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전 체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을 때 표명된다. **부적정의견**은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사실이 중요하며 이를 수정하지 않는 한 재무제표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혹은 재무제표 전 체의 내용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된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의 독립성 이 결여되거나 특히 중요한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표명된다.

35.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이용자의 합리 적 의사결 정을 지원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회계감사제도의 도움으로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가 공 정성을 갖 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해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36.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 계량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무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생략되고 있다.  
· 관념적 추론이나 인위적 계산방법에 따른 자산평가나 이익측정방법 때문에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 되는 많은 정보들이 현실세계의 경제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해 재무제표작성의 기초가 되는 역사적원가주의는 미래현금흐름의 예 측이나 기타 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재무제표이외의 재무보고 수단을 통하여 보완되거나, 회계원칙의 수정이나 새로운 회계이론의 개발 등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 제7장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 I.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 통화 + 통화대용증권 + 요구불예금 + 현금등가물
  - 통화
  - 통화대용증권: 타인발행수표 기일도래공사채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표
  - 요구불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 현금등가물: ①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 ②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 ③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
    - ④ 취득당시 만기가 3월 이내 도래하는 것(13조)

#### 2.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중 기업이 단기적으로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또는 사용이 제한되어있는 예금

- 기업어음(CP)
- 양도성예금증서(CD)
- 어음관리계좌(CMA)

cf) 적립기금 담보성장제예금 -장기금융상품

#### 3. 당좌예금과 당좌차월

- 당좌예금
-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 II. 내부통제와 현금관리

#### 1. 소액현금제도

·부정액기금전도제도

·정액기금전도제도

#### 2. 은행계정조정표

- 회사장부잔액과 은행장부잔액의 차이를 밝히고 원인을 규명하는 표
- 불일치원인 및 차이조정

	<u>회사측잔액</u>	<u>은행측잔액</u>
·미결제수표		-
·미기록예금		+
·미통지예금	+	
·은행수수료	-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	
·부도수표	-	
·기장오류	+-	+-

## 제 8 장 受取債權 및 支給債務

\*\*\*\*\*

본문의 주요내용

\*\*\*\*\*

- 1. 受取債權(receivables)이란 기업이 재화나 용역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미래에 현금을 수취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증서나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 중에서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을 賣出 債權이라고 한다.

2. 支給債務(payables)는 상품, 원재료 혹은 용역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채무와 자금차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로서 미래에 현금이나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買入債務에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다.

3. 고객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업이 수취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貸 損(bad debt expenses)이라 한다. 기업에서 대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상각법과 충당금설정법이 있다. 直接償却法(direct write-off method)은 대손이 실제 발생할 때마다 당기의 대손비용으로 처리하고 관련 수취계정을 장부에서 제각한다. 직접상각법은 수익·비용대응 및 자산평가 관점에서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4. 充當金設定法(allowance method)은 관련 수취채권이 기록되는 연도에 미리 미래에 당해 수취채권에서 발생되리라고 예상되는 대손을 추정하여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수취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한다. 充當金設定法은 수익·비용대응 및 자산평가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우수하며,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다.

5. 충당금설정법에서는 대손상각과 관련하여 1) 회계기말에 대손의 계상과 보고, 2) 대손확정시의 회계처리, 3) 상각채권의 회수에 대한 회계처리문제가 있다. 회계기말에는 회수불능한 채권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한 후, 차변에는 대손상각이라는 비용계정에 기록하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이라는 평가계정에 기록된다. 대손상각비용은 매출채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보고되고, 기타의 수취채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보고된다. 한편, 대손충당금은 대차대조표상에 관련 수취채권의 차감항목으로 보고된다.

6. 수취채권에 대해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잔액의 범위내에서 대손충당금계정을 줄이고 동시에 관련 채권계정을 제거하는 분개를 한다. 만일 대손확정액이 대손충당금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만큼을 대손상각계정을 사용하여 당기의 비용으로 추가계상한다.

7. 당기에 대손확정으로 제각시켰던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시의 분개를 취소시키는 역분개를 한다.

8. 수취채권의 기말잔액에 적절히 대응될 수 있는 기말대손충당금 잔액을 추정한 후 결산직전의 잔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을 당기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며,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차) 대손상각비 ..... (대) 대손충당금 .....

만일 결산직전의 잔액이 추정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을 다음과 같이 분개하여 환입시키면, 대손충당금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보고한다.

(차) 대손충당금 ..... (대) 대손충당금환입 .....

9.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매출채권잔액 전체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회수불능채권으로 간주하여 추정하는 매출채권잔액비율법과, 외상매출금잔액을 기간 경과일수의 장단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연령분석표(aging schedule)를 작성하고, 각각의 집단에 대하여 상이한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연령분석법이 있다.

10.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은 어음의 발행자가 특정 수취인 또는 어음의 소지인에게 미래의 특정 지정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 증서이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받을어음이라 하며 매출채권으로 보고하고,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급어음이라 하며 매입채무로 보고한다.

11. 어음은 그 권면에 이자가 표시되어 있는냐의 여부에 따라 이자부어음과 무이자부어음으로 나눌 수 있다. 利子附어음은 발행인이 만기일에 액면가액 이외에 일정 금액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는 어음이고, 無利子附어음은 발행인이 만기일에 단지 액면가액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어음이다. 따라서 무이자부어음의 액면가액은 보통 어음의 耐用期間 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된다.

12. 기업이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 자금을 빌릴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金融어음이라고 하며,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어음계정과 구별될 수 있도록 차입금계정(자금을 빌려준 어음수취인은 대여금계정)을 사용하여 보고한다.

- 13. 이자부약속어음이 만기일 전에 결산일이 도래하면 수정분개를 통하여 발생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해 주어야 하며, 일반적 상거래에서 수취한 단기의 무이자부어음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자수익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
- 14. 어음의 만기일에 발행인의 지급거절 혹은 지급불능으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 음계정에서 不渡어음(dishonored note)으로 재분류하는 분개를 한 다음 외상매출금, 받아들여 음과 함께 매출채권으로 보고 한다.
- 15. 만기일 전에 받아들여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만기가액에서 이자비용(할인료)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융통하는 것을 받아들여음의 割引이라 한다. 받아들여음을 할인하는 경우 상환청구 권의 유무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 16.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란 어음발행인 또는 어음배서인이 만기에 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어음양수인이 어음을 양도한 어음발행인 또는 어음배서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17. 무이자부어음의 경우 어음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할인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료를 계산하고, 이자부어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과 만기까지의 이자를 합하여 어음의 만기가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 대하여 할인료를 계산한다. 割引料는 이자비용의 일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자비용계정에 계상하고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 18. 차용증서나 어음 등을 받고 현금을 대여하였을 경우 貸與金계정에 기록하고, 현금을 차용하였을 경우에는 借入金계정에 기록한다.
- 19.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 중 자산의 구입이나 처분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未受金 혹은 未支給金으로 보고한다. 1년 이내에 회수할 목적인 미수금은 유동자산중 당좌 자산으로, 1년 이내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20. 실현주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당기의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하나 아직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未收收益으로 처리한다. 당기에 비용으로 발생되었거나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그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은 未支給費用으로 처리한다. 미수수익은 유동자산으로, 미지급비용은 유동부채로 분류된다.
- 21.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매입하거나 매출할 목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거나 지출한 경우와 같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를 先給金 혹은 先受金이라 한다. 선급금은 당좌자산으로, 선수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22. 수익·비용 대응의 개념에 비추어 차기의 비용으로 보고되어야 하나 그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先給費用으로 보고한다.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수취한 수익 중 실현주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차기 이후에 속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그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先受收益으로 보고한다. 선급비용은 당좌자산으로, 선수수익은 유동부채로 분류된다.
- 23. 기업이 현금을 지출하거나 수취하였지만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임시적으로 未決算計定인 仮支給金 혹은 仮受金계정에 기록한다. 그러나 결산시점까지는 반드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표시해야 한다.
- 24. 預受金은 궁극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을 기업이 거래처나 종업원으로부터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유동부채계정이다.
- 25. 장기수취채권은 만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수취일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취채권들로서 투자자산에 속하는 계정들이다. 여기에는 장기대여금, 장기성매출채권, 전세권과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과 영업보증금 등이 있다.

## 제 9 장 在庫資産

\*\*\*\*\*

### 본문의 주요내용

\*\*\*\*\*

- 1. 在庫資産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따라서 동일한 경제적 자원이라도 그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분류될 수 있다. 가령 토지의 경우 제조기업이



공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면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기업이 판매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2. 상품매매회사의 재고자산은 대부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商品(merchandise)으로 구성되고, 제조회사의 재고자산은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製品(finished goods), 생산과정에 있는 在工品(work in process), 제품생산을 위해 보유중인 原材料(raw materials)등으로 구성된다.

3. 재고자산의 평가는 당기의 이익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기말재고액의 크기에 따라 매출원가가 다르게 결정되고, 이어 매출총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받는다.

4. 당기의 기말재고액은 차기의 기초재고액이 된다. 따라서 기말재고액이 과대 혹은 과소계상되는 오류가 발생되면, 당기와 차기의 매출원가, 순이익 등은 각각 잘못 계상된다. 그러나 이 오류가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2개년을 기준으로 종합해 보면 자동으로 상쇄되므로 이러한 오류를 自動 調整誤謬(counter balancing error)라고 한다.

5. 재고자산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지재고조사법(periodic inventory system)과 계속기록법(perpetual inventory system)이 있다.

6. 實地在庫調査法에서는 상품을 매입하면 매입계정에 기록하고, 판매시점에서는 매출수익만 기록하고 매출원가는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중에는 재고자산계정이 변동되지 않은채 기초재고액이 기말까지 남게 되므로, 기말재고액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실사과정과 이를 장부상에 반영시키기 위한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7. 실지재고조사법을 채택하는 기업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수정분개로서

(1) 실사에 의해 파악된 기말재고를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한

(차) 매출원가 .... (대) 재고자산(기초).....  
(차) 재고자산(기말) .... (대) 매출원가 .....

의 2가지 분개와

(2) 매입계정잔액을 매출원가계정으로 대체시키기 위하여

(차) 매출원가 .... (대) 매입 .....

의 분개가 필요하다.

8. 실지재고조사법에서 매출원가는 실사에 의해 기말재고액이 결정된 후 역산을 통해서만 산출될 수 있다. 즉 판매가능액(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액의 합계)에서 기말재고액을 차감하여 매출원가가 결정된다.

9. 실지재고조사법에서 기말재고액은 재고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결정하므로 재고수량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고수량 결정시 항상 그 재고자산의 소유권에 관심을 두고, 그 소유권이 실제로 기업에 있는 것만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재고자산에는 미착상품, 위탁상품, 시용품, 할부판매상품 등이 있다.

10. 未着商品(goods in transit)은 결산일 현재 운송 중에 있는 매입상품을 말하며, 선적지인도기준인 경우 매입자의 재고자산, 도착지인도기준인 경우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11. 委託商品(consigned goods)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발송한 상품으로서 적송품이라고도 한다. 위탁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위탁자의 재고자산으로 보고한다.

12. 試用販賣(sales on apporoval)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되, 소비자로부터 하여금 이를 시험적으로 사용하게 한 뒤 매입의사표시를 하면 판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판매방식이다. 이때 비록 소비자에게 상품이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의사표시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보고한다.

13. 割賦販賣(installment sales)의 경우에는 할부대금의 회수가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말재고에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즉, 회수가가능성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법률적 소유권에 관계없이 판매자의 기말재고자산에서 제외시킨다.

14.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기록된다. 취득원가에는 매입가격뿐만 아니라 판매 혹은 제조 가능한 상태까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매입운임, 취급, 보관을 위한 지출비용, 보험료와 제반세금 등)이 포함된다.

15. 상품이 회계기간 중 여러 차례 나뉘어 매입되고 매입시점마다 그 단가가 다를 때, 어떤 단가결정방법이 적용되었는가에 따라 기말 재고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으로는 크게 실물흐름에 따른 방법과 가정된 원가흐름에 따른 방법이 있다.

16. 實物흐름(actual physical flow)에 따른 기말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은 개별법이다. 個別法(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은 개별상품 각각에 대하여 단위당 원가 뿐만 아니라 취득, 보유, 매출상황을 알 수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말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개별적으로 추적하여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한다. 이 방법은 매출원가가 실제물량흐름에 일치하여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하나,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번거롭다는 단

점이 있다.

- 17. 가정된 원가흐름에 따른 재고자산단가 결정방법에는 평균원가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이 있다.
- 18. 平均原價法(average cost method)은 판매가능총원가를 판매가능총수량으로 나누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총평균법 또는 가중평균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적용하기는 간편하나, 회계기말에 평균 단가가 결정되므로 기말 이외의 시점에서는 원가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19. 先入先出法(first-in, first-out; FIFO)은 물량의 실제 흐름과는 관계없이 먼저 구입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말재고는 가장 최근에 구입된 가격으로 표시되는데 비하여, 매출원가는 과거에 구입된 단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 20. 後入先出法(last-in,first-out ; LIFO)은 실제 물량흐름과는 관계없이 가장 최근에 매입된 상품이 먼저 매출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말재고는 과거에 매입된 가격으로 표시되는데 비하여, 매출원가는 최근에 매입된 가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 21.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기간에 후입선출법이 가장 보수적인 회계처리방법이며, 선입선출법이 가장 많은 순이익을 보고하는 방법이다. 개별법이나 평균원가법은 항상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범위 사이에서 순이익이 결정된다.
- 22. 반기재무보고가 필요하거나 기타의 목적상 임시로 재고액을 추정하고자 하는 경우 매출총이익법(gross profit method)이나 매출가격환원법(retail inventory method)을 사용한다.
- 23. 賣出總利益法은 과거의 평균이익율을 기초로 매출총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당기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한 후, 매출원가를 판매가능액으로부터 차감시켜 기말재고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 24. 賣出價格還元法은 매출가격기준의 기말재고액에 원가율을 곱해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이라고도 한다. 매출가격기준의 기말재고액은 각 품목별로 부착된 판매가격표를 통해서 산출하거나, 이러한 방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출가격기준 판매가능액에서 당기 매출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추정한다.
- 25. 결산시점에서 재고자산에 대해 순실현가능가액과 취득원가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低價基準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원가 보다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재고자산평가손실로서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으로 보고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재고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된다.
- 26.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總計基準이나 種目別基準을 적용할 수 있다. 총계기준이란 재고자산 전체금액에 대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이고, 종목별기준이란 재고자산의 종목별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이다.
- 27. 재고자산의 보관중 분실, 도난, 파손, 감모 등의 원인으로 수량부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파악된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사에 의해 파악된 수량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장부상 수량보다 실사 수량이 적은 경우 在庫資產減耗損失로 처리하되, 부족의 원인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매출원가로, 비정상적인 경우라면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 28. 繼續記錄法은 재고자산의 입고(매입) 및 출고(판매) 때마다 그 사실을 반영시켜 재고자산계정이 항상 그 보유액을 나타내며, 출고액은 매출원가로 보고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 29.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재고감모손실에 대한 회계처리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판매가능액	W 8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상의 기말재고액	W 10,000 (W100 X 100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지재고조사에 의해 파악된 재고액	W 9,000 (W100 X 90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고부족수량 10개 (4개는 정상적인 원인, 6개는 비정상적 원인)	<input type="checkbox"/>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판매가능액 W80,000에서 실지재고액 W9,000을 차감하여 매출원가 (W71,000)가 결정되므로 재고감모손실은 전액 매출원가에 반영된다. 이 경우 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감모손실 W400 만을 매출원가에 반영시켜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분개를 추가로 해주어야 한다.

(차) 재고감모손실      600                      (대) 매출원가                      600

계속기록법에서는 판매가능액에서 장부상 기말재고액 W10,000을 차감하면, 매출원가는 W70,000으로 결정되어 재고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분개를 추가로 해주어야 한다.

(차) 매출원가 400 (대) 재고자산 1,000  
재고감모손실 600

이 분개로 정상적 원인에 의한 재고감모손실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매출원가는 W70,400으로 보고되고,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보고된다.

30.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회계기간 중 재고자산 단가가 변동되면, 기말 재고액과 매출원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한 가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계속기록법의 개별법과 선입선출법은 실지재고조사법에서와 동일한 기말재고액을 산출한다. 평균원가법을 계속기록법에 적용하는 경우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새로운 평균단가를 계산하므로 이를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계속기록법에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실지재고조사법에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기말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 구입한 상품순으로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므로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가 상이하게 계산된다.

제 10 장 有形資産과 無形資産 및 移延資産

\*\*\*\*\*

본문의 주요 내용

\*\*\*\*\*

- 고정자산은 크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의 유형자산 등과 같이 영업 혹은 생산활동을 위해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주요 회계처리문제는 取得과 處分, 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그 維持 및 改良과 관련된 지출, 자산의 사용원가를 기간배분하는 償却 등이 있다.
- 유형자산은 취득시점에서 원칙적으로 取得原價(acquisition cost)를 기준으로 기록된다.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을 구입 혹은 제작하기 위해 소요되는 직접원가와 자산이 본래 의도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기 까지 지출된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 유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할 때는 송장가격에 매입수수료, 운임, 설치비, 시험운전비,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가산한 가격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長期延拂條件으로 구입할 때는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여러 종류의 유형자산을 一括購入(basket purchase)한 경우는 개별 유형자산의 시장가격 혹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이 금액에 비례하여 일괄지급한 총원가를 배분시키는 방법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 유형자산을 기업 자체에서 제작할 경우 제작에 소요된 모든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제작완료 시점까지의 차입금 이자도 建設資金利子로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제작원가가 발생하면 일단 건설중인자산계정에 집합시켰다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자산계정에 대체시킨다. 자가제작에 소요된 원가가 외부에서 구입할 때의 시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製作損失로서 건설원가에서 차감하고 당기의 특별손실로 보고한다.
- 주식을 발행하여 유형자산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리고 교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취득 이후에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은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분류된다. 資本的支出(capital expenditure)은 그 경제적효익이 장래기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출로서 당해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고, 감가상각을 통해 미래기간의 수익에 대응되어야 할 지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출로 인해 당해자산의 생산용량이 증대되거나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자산의 경제적가치 혹은 생산능력이 향상되는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 중의 어느 한 가지만 충족되더라도 자본적 지출로 본다.
- 收益的支出(revenue expenditure)은 지출의 효과가 당기에만 미쳐서 당기비용 처리되는 것이 합리적인 지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수선·유지를 위한 경상적인 지출,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지출, 제작손실과 같이 비능률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분류된다.
-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기업은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상대적으로 秘密積立金(secret reserves)을 갖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반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자

본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混水資本(watered capital)을 보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0.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사용기간 동안 減價償却(depreciation)된다. 감가상각을 하는 목적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 동안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감가상각액이 결정되면 차변에는 減價償却費, 대변에는 減價償却累計額계정을 사용한다. 생산활동에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포함되며, 그 이외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고된다.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은 대차대조표상에 관련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되는데,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帳簿價額(book value)이라 한다.

11. 감가상각액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등이 있다.

12.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과 체감상각법에 속하는 정률법, 연수합계법 그리고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연간 감가상각비는 다르게 결정된다. 기업은 자산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단 한 가지 방법이 선택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3. 定額法(straight-line method)은 매기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다. 이는 감가상각 대상액(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매기간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14.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은 상각 초기에는 많은 금액이 상각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각액이 감소하는 遞減償却法(accelerate depreciation)으로 분류된다. 체감상각법을 이용하면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총비용, 즉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의 합계액을 매년 비슷하게 유지시킬 수 있으며, 유형자산의 생산능력이나 서비스의 질이 높은 초기에 많은 감가상각액을 계상할 수 있으므로 수익·비용의 대응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15. 生産量比例法(units-of-production method)은 생산량 혹은 사용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삼림, 유전, 광산과 같은 천연자원의 경우에 적용하면, 수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16. 가령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과거 회계기간동안에도 정액법을 적용했을 경우 계상되었을 감가상각비누계액과 이미 정률법에 의해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감가상각비누계액과의 차이를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계상한다. 그리고 당해 회계연도부터는 정액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한다. 한편 감가상각내용연수의 변경과 같은 회계추정의 변경시에는 당해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추정방법 또는 추정치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회계기간 중에 구입한 유형자산의 초년도 상각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1년기준, 반년기준, 월할기준이 있다. 1년기준은 자산의 구입시점에 관계없이 1년분 계산액 전액을 초년도의 감가상각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반년기준은 회계연도의 상반기에 자산을 구입하면 1년분 계산액을, 하반기에 구입하면 6개월분만 계상하는 방법이다. 월할기준은 구입시점부터 회계연도말까지의 개월 수에 월간 상각액을 곱하여 감가상각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18. 영업활동에 사용하여 오던 유형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한다. 그 상각비는 운휴자산감가상각비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보고한다.

19.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한 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에서 제각시킨다. 이 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을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는 특별이익(손실)으로 보고한다.

20.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추정판매가액-추정판매비용)과 사용가치중에서 큰 금액인 회수가능가액이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중요하게 낮으면, 이를 유형자산감액손실로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다만 그 다음 회계기간에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하향 조정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손실을 환입하여 이익으로 처리한다. 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한 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에서 제각시킨다. 이 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을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는 특별이익(손실)으로 보고한다.

21. 무형자산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창업비, 개발비 등과 같이 기업이 장기간 영업 혹은 생산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한다.

22. 외부에서 有償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매입원가외에 등록비 및 제세공과와 법률수수료 등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 23. 기업내부에서 창출된 무형자산으로 미래의 경제적효익의 실현가능성이 높고,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지출된 원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지출된 원가를 특허권 등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 24.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기간 동안에 체계적으로 대응시키는 원가배분과정을償却(amortization)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해서만 1년을 단위로 상각되며, 잔존가치는 0(0)으로 간주되며, 해당 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된다. 한편 무형자산의 상각기간 결정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와 실제 경제적 내용연수를 비교하여 보다 짧은 기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 25. 營業權(goodwill)은 특정기업이 동종 산업의 타기업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투자수익률 이상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超過利益力을 화폐가치로 표시한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자가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업합병이나 영업양수 혹은 전세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만을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 26.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포함한다. 이들 무형자산은 관계 법률에 의해 해당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특정 기업이 일정 기간동안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에서 특허권은 12년, 실용신안권은 5년, 의장권은 8년, 상표권은 10년으로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산의 법정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중 짧은 기간 이내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27. 광업권은 20년, 어업권은 10년, 차지권은 임차기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생산량비례법 혹은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한다.
- 28. 창업비는 무형자산으로서 회사 설립시점까지 발생한 설립비용과 회사설립 이후 개업 준비기간중에 발생한 사업인가 및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의미하며, 20년 이내에 상각한다.
- 29. 개발비는 신제품, 새로운 용역, 신기술 등을 창조 또는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지출을 말한다. 신시장의 개척 혹은 새로운 경영조직을 채택하는데 소요되는 경성개발비,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연구비 등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30.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특정연구 및 개발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최대 20년)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 보 론 ]

- 31. 天然資源(natural resources)은 석유, 광물, 목재 등의 자산을 말한다. 천연자원의 원가는 취득원가, 탐사원가 및 개발원가로 구분된다. 取得原價는 천연자원의 탐사, 발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 이미 발굴된 천연자원을 취득하는데 지급한 대가를 포함한다. 취득원가는 광업권계정에 기록한 후 탐사가 성공하면 해당 천연자원계정에 포함시키고, 실패하면 손실로 기록한다.
- 32. 探查原價(exploration)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는 1) 모든 탐사원가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 2) 모든 탐사원가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전부원가법 (full cost approach), 3)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실패한 것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성공원가법(successful efforts approach)이 있다.
- 33. 開發原價(development costs)는 성공한 탐사프로젝트에서 천연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소요되는 지출로서, 채굴 및 수송에 필요한 중장비 등의 유형설비자산과 굴착, 터널공사, 갱도공사 등에 소요되는 무형의 개발원가로 나뉘어 진다. 유형설비자산은 다른 유형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며, 무형의 개발원가는 천연자원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 34. 천연자원의 원가를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을 減耗償却(depletion)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생산량비례법에 의해 감모상각한다.

11장 12장은 개정전의 자료이므로 생략합니다

### 제 13 장 자 본

\*\*\*\*\*

#### 본문의 주요 내용

\*\*\*\*\*

1. 자본은 所有主持分(owners' equity)이라고도 하며,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남는 잔여지분, 즉 기업의 純資產(net worth)을 말한다.
2. 個人企業(proprietorship)에서는 기업과 기업주가 완전히 동일시 되므로 자본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資本金(capital)계정 하나로 회계처리한다. 기업주에 의한 출자나 순이익이 발생하면 자본금계정을 직접 증가시키며, 기업주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면 자본금 계정에서 직접 차감한다.
3. 파트너쉽(partnership)은 조합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등과 같이 인적으로 결합된 회사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파트너쉽에서는 사원 또는 조합원들의 출자액 및 순이익의 분배비율을 계약에 명시하고, 신규가입이나 탈퇴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갱신한다. 자본은 출자액과 잉여금을 구분하지 않고 자본금계정을 사원 혹은 조합원별로 별도로 분리표시하고 있다.
4. 주식회사는 납입자본 및 이익잉여금의 처분 등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의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처리되며, 이익잉여금내에서도 그 처분목적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보고된다.
5.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금계정을 額面價額(발행주식 수 x 주당 액면가)으로 표시하고,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분류하며, 법정자본금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이사회가 발행할 수 있는 자본의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수권자본이라 한다.
6. 주식의 청약시 받은 현금은 新株請約證據金계정에 기록하고,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금 다음에 표시한다.
7.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이를 割増發行이라 하며, 이 때 액면가액은 자본금계정에 기록하고 액면을 초과한 금액은 株式發行超過金계정에 기록한다. 주식발행초과금계정은 자본잉여금으로 보고된다.
8. 기업이 이미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재취득한 주식을 自己株式(treasury stock)이라 한다. 자기주식의 회계처리방법으로는 原價法과 額面價額法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원가법으로 처리하고, 대차대조표에는 자본조정항목으로 분류하여 자본에서 차감되도록 보고한다.
9. 자기주식을 원가법으로 처리하면, 취득시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재매각시 취득원가와 처분가격의 차이를 自己株式處分利益계정에 기록한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며,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는다. 취득원가이하로 처분되었을 경우에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계정에서 차감하며, 부족된 금액은 이익잉여금계정에서 차감한다.
10. 자본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주주에게 주식소각의 대가를 지급하는 實質的 減資와 대가없이 소각하는 形式的 減資가 있다. 實質的 減資시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원래의 발행가액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계정인 減資差益으로 기록하고,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자차손계정에서 처리한다. 감자차손은 감자차익의 잔액이 있으면 이와 우선하여 상계하고 나머지는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形式的 減資는 주식수를 일정 비율로 줄이거나 주당 액면가액을 일괄적으로 감액시켜 이루어진다. 결손전보 목적으로 형식적 감자를 실시할 경우 대변계정에 이월결손금이 나타나고, 잔액이 있으면 감자차익으로 기록한다.
11. 資本剩餘金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된다. 기타자본잉여금에는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있다.
12.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금으로의 전입(무상증자)나 누적된 이월결손금의 전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자본금은 액면가액기준으로 주식발행수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자본총액과 자산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13. 이익잉여금을 증감시키는 요인에는 당기순이익(손실)과 배당금, 배당건설이자상각,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등이 있다.
14.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시점은 배당이 선언된 시점이며, 이 시점 이후부터 배당금은 주주에 대한 기업의 부채인 미지급배당금으로 기록된다.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서는 미지급배당금계정을 제거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
15. 株式配當(stock dividends)은 주주들에게 현금대신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배당액만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할 뿐 회사의 자산이나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배당을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16. 이익잉여금에 대한 '處分'은 이익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는 이익배당과, 배당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특정 잉여금항목의 설정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積立 또는 積立金도 실제 현금 등으로 별도의 자금을 비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배당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을 특정의 목적을 가진 항목으로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利益剩餘金處分額은 배당 혹은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말하며, 이익준비금이나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같이 관련법률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법정적립금과 기업이 배당으로 인한 社外流出을 제한을 위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이 포함된다. 處分前利益剩餘金은 아직 일정한 사용목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익잉여금으로서 배당이나 적립이 가능한 금액을 나타낸다.

18. 任意積立金은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으로 나누어진다. 積極的 積立金은 기업의 자금 또는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적립금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 감채기금적립금, 신축적립금이 있으며, 목적달성 후에는 별도 적립금이나 기타 임의적립금으로 대체된다.

19. 消極的 積立金은 장래에 발생할 손실이나 자산의 감소에 대비한 적립금으로서 우발손실적립금, 자가보험적립금, 결손전보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이 있으며 실제로 손실이나 자산이 감소된 경우 소극적 적립금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당기순이익이 감소되더라도 이익잉여금잔액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된다.

2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는 전기로부터 이월된 이익잉여금과 당기에 발생한 이익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를 나타내고 다음 회계기간으로 이월된 이익잉여금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는 재무제표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이입액을 가산하고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하여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을 결정하는 형태로 작성된다.

21. 당기에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당기말 처분전 결손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의 순서에 따라 결손금을 전보시켜 준다.

22. 株當純利益(earning per share;EPS)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순이익을, 주당경상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경상이익을 당해 회계기간의 가중평균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출된다. 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회계기간 중에 전환되어 보통주가 발행되었다면, 실제의 전환시점에 관계없이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당순이익을 산출한다.

### 제 14 장 現金흐름表

\*\*\*\*\*

본문의 주요내용

\*\*\*\*\*

1. 現金흐름表(Cash Flow Statements)는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관련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통하여 재무상태의 변동원인을 표시하는 기본재무제표의 하나이다.
2.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정보이용자들은 미래현금흐름의 예측, 부채와 배당금의 지급능력, 순이익의 질,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등을 얻을 수 있다.
3.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되는 **현금의 범위**는 현금과 예금 및 현금등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現金等價物**이란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3개월이내의 상환조건인 환매채등을 의미한다.
4. 현금흐름표의 머리부분에는 기업의 명칭, 현금흐름표라는 본 재무제표의 명칭, 현금흐름표가 나타내는 특정기간이 표시된다. 내용부분에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표시되고, 이들 세 활동으로부터의 현금의 증가액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과정이 표시된다.
5. 현금흐름표에는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표시된다.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된 수익창출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 및 재화와 용역의 판매와 관련한 활동을 의미한다. 투자활동이란 현금을 대어하고 이를 회수하는 활동과 유가증권,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을 가르킨다. 재무활동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 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과 같은 부채와 자본의 증

감에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직접법**은 현금의 증감을 초래하는 수익 또는 비용항목들을 직접 이용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구한다. **간접법**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여 현금흐름을 계산한다.

7. 직접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은 ①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로부터 직접 현금의 유입액 과 유출액을 개별항목별로 구하는 방법과 ② 손익계산서상의 수익과 비용항목들을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는 항목들과 채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의 증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②의 방법에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계산한다.

- 1) 매출활동으로부터의 현금유입;
  - 매출액 + (매출채권 기초잔액 - 매출채권 기말잔액)
- 2) 매입활동에 대한 현금유출;
  - 매입액 + (매입채무 기초잔액 - 매입채무 기말잔액)
- 3) 매출활동 이외의 수익에 의한 현금유입;
  - 매출활동 이외의 수익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4) 매입 이외의 비용에 대한 현금유출;
  - 매입 이외의 비용 + 선급비용의 증가(-감소) + 미지급비용의 감소(-증가)
- 5)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수익과 비용;
  -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련이 없는 수익이나 비용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계산에서 제외시킨다.

8.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일치되지 않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1)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익과 비용;
  - 외상매출과 외상매입,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비 등
- 2)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 매출채권의 회수와 매입채무의 지급 등

9. 간접법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음의 항목들을 조정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구한다.

1) 현금의 유출과 유입이 없는 비용과 수익; 당기순이익을 산출할 때 가감되었던 항목인데 이들은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으므로 조정한다.

- .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당기순이익에 가산
  - 감가상각비, 영업권상각비, 개발비상각비,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으로 인한 사채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손실,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등
-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당기순이익에서 차감
  - 유가증권평가이익

2) 투자와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과 수익; 유형자산의 처분 등의 투자활동이나 고정부채의 상환 등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현금흐름표에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은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수익은 현금흐름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기 위해 당기순이익에 가감된다.

- . 투자와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 당기순이익에 가산
  - 처분손실(유가증권, 투자자산, 유형자산), 상환손실(사채, 장기차입금)
- . 투자와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 당기순이익에서 차감
  - 처분이익(유가증권, 투자자산, 유형자산), 상환이익(사채, 장기차입금)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변동;

당기순이익 산출과정에 반영된 수익을 인식할 때 현금이외의 자산(예, 매출채권)이 증가될 수 있으며, 당기순이익 산출과정에 반영된 비용이 발생할 때 현금지출이외의 부채(예, 매입채무)가 증가될 수 있기 때



문에 이러한 항목들이 당기순이익에서 가감되어야 한다.

.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등 기말잔액을 기초 잔액과 비교하여 증가는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고, 감소는 당기순이익에 가산한다.

.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채;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등 기말잔액을 기초잔액과 비교하여 증가는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고, 감소는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10. 현금흐름표상에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크게 유입액과 유출액으로 구분되어 보고 된다. 투자 활동에는 기업이 현금을 대어하고 회수하는 활동, 유가증권과 투자자산 및 유형 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이 포함된다.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실제 현금 처분가액으로 현금유입액을 기재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실제 현금취득가액으로 현금의 유출을 기재한다.

1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는 현금의 유입항목으로 현금의 차입과 사채의 발행, 유상증자 등이 포함되고, 현금의 유출항목으로 차입금의 상환이나 배당금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이때 사채의 발행이나 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액면가액이 아닌 발행가액으로 기재한다.

12.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정보의 원천은 이미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추가적인 정보 등이다. 작성방법으로는 정산표이용법과 T-계정이용법이 있다.

13. T-계정법을 이용할 때에는 1) 현금 T-계정을 설정하여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부터의 현금흐름이 구분되어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 2) 당기순이익을 현금 T-계정의 영업 활동부분의 차변에 기재한 다음 3) 비교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현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의 증감액을 해당계정과 현금 T-계정의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 중 적절한 부분에 기재하여 4) 현금 T-계정으로부터 현금흐름표를 작성한다.

15. 정산표법을 이용할 때에는 1) 대차대조표의 기초잔액이 표시되는 부분과 증감내역이 표시되는 증감항목란, 그리고 기말잔액이 표시되는 란으로 정산표를 작성하고 2) 정산표의 하단부 분에는 현금흐름표 부분을 마련하여 조정항목란으로부터의 증감액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표시한 다음 3) 정산표의 현금흐름표 부분에 집합된 정보를 이용하여 현금흐름표를 완성한다.

(끝)